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18세기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지도교수 강 봉 룡

목포대학교 대학원

도서해양문화학 협동과정

박 지 연

2018년 2월

18세기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Jeongcheol Jo' s Exile in Jeju-do in
Eighteenth Century and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지도교수 강 봉 룡

목포대학교 대학원
도서해양문화학 협동과정

박 지 연

18세기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목포대학교 대학원
도서해양문화학 협동과정

박 지 연

상기자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경 옥

심사위원

최 성 환

심사위원

강 봉 룡



2018년 2월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2장 조정철의 생애와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	3
제1절 조정철(1751~1831)의 생애와 제주도 유배.....	3
제2절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와 내용.....	8
제3장 『정헌영해처감록』을 통해 본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 생활.....	11
제1절 제주목 유배기(1777~1781): 제주목사와의 갈등.....	11
제2절 정의현 유배기(1782~1790): 섬 주민들의 생활상.....	17
제4장 조정철의 유배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28
제1절 홍랑의 길.....	28
제2절 조정철의 유배길.....	34
제3절 유배문화콘텐츠의 활용.....	40
제5장 결론.....	46
참고문헌	
국문초록	

표 목 차

<표 1> 『정헌영해처감록』의 구성과 내용.....	8
<표 2> 조정철의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의 이배여정.....	34
<표 3> 『정헌영해처감록』 주제별 분류.....	41
<표 4> 제주도 굴유의 품종.....	42

그 립 목 차

<그림 1> 조정철의 가계도와 제주도 유배인.....	5
<그림 2> 양주조씨족보.....	30
<그림 3> 홍윤애의 무덤 터.....	30
<그림 4> 홍윤애의 무덤.....	30
<그림 5> 홍랑길과 홍랑묘 위치.....	31
<그림 6> 홍랑길 표지판.....	32
<그림 7> 홍랑길 첫 건물.....	32
<그림 8> 홍랑길과 무덤 터.....	33
<그림 9> 동문과출소 (옛 제주성 동문).....	36
<그림 10> 동회천 표지석.....	36
<그림 11> 백약이 오름.....	36
<그림 12> 근민헌(2014년 복원).....	36
<그림 13> 조정철의 유배길.....	37
<그림 14> 제주유배길 팸플릿.....	38
<그림 15> 추사길 1코스(집념의 길).....	39
<그림 16> 추사길 2코스(인연의 길).....	39
<그림 17> 추사길 3코스(사색의 길).....	39
<그림 18> 성안유배길.....	39
<그림 19> 최익현 유배길.....	39

Jeongcheol Jo's Exile in Jeju-do in Eighteenth Century and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Park Ji Yeon

Island and Marine Culture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Gang Bongr 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Jeongheonyeonghaecheogamrok*(『貞軒瀛海處坎錄』), a poetry and prose book by Jeongcheol Jo(趙貞喆), and to search for ways to utilize the cultural content resources from the exile of Jeongchoel Jo in Jeju island. First, *Jeongheonyeonghaecheogamrok* was introduced, which provided information on the life of Jeongcheol Jo and the key source of information. Then, the life of exile of Jeongcheol Jo described in *Jeongheonyeonghaecheogamrok* was restructured to find the types of cultural resources related to Jeongcheol Jo and ways to utilize them.

Jeongcheol Jo was the great grandson of Chungikgong Taechae Jo(趙泰采), one of vassals of the Noron(老論) Faction, and son-in-law of Jihae Hong(洪趾海), the head of Noron Byeokpa(僻派), under the reign of King Sukjong(肅宗). In 1777, Jo was implicated in the attempted

assassination of King Jeongjo(正祖) and banished to Jeju island.

The life of exile was not easy for Jo. His adversaries, Jejumoksa (the governor of Jeju island) Yeongsu Kim(金永綏) and Sigu Kim(金蓍耆), put him under a constant surveillance and persecution. Especially, Sigu Kim tried to frame Jo with treason and tortured and killed Yunae Hong(洪允愛) who frequented with Jo. Because of Kim, Jo was imprisoned again and acquitted after an investigation but he was moved from Jeju-mok to Jeongui-hyeon. His life in Jeongui-hyeon was difficult as well for Jo, but this is where he met his life-long friend, Seongrin Kim(金聖麟). In 1811, Jo was posted as Jejumoksa(濟州牧使) and Jeolla island bangeosa(border defence officer), after which he came down to Jeju island to honor Yunae Hong who he thought died because of him.

During his 13 years in Jeju island, 5 in Jeju-mok and 8 in Jeongui-hyeon, Jo recorded his life in his poetry and prose book, *Jeongheonyeonghaecheogamrok*. It contains his sorrow, dejection and resentment towards the injustice of his banishment. There were numerous poetries from his book including ‘Tamrajapyeong’(耽羅雜詠) and ‘Gyulyupumje’(橘柚品題) that described the nature and life in Jeju island as well as tangerines and citrons grown in the island. Moreover, it also described in detail the journey Jo had to take from Jeju island to Seong-eup(城邑) when he was exiled from Jeju-mok to Jeongui-hyeon, which can be utilized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life of the exiled and life in Jeju island. In addition, a proposal was made

for contents development using exile and cultural resources and building a cultural center for Jo. First, if the path Jo took during his exile is named “Path of Exile of Jo Jeongcheol” with signs containing the poetries of Jo and others exiled in Jeju island as well as the lives of Jeju people, it will definitely be a proper tourist resource with an important history theme. Second, cultural resources of Hong Yunae include ‘Hongrang-gil(홍랑길)’, her tomb and her tombstone written by Jo. The story of Hong and her tomb is portrayed on the tombstone as ‘Honguinyeojibi’(弘義女之碑). Utilizing these resources, it is anticipated that a proper storytelling and themed attraction can be fashioned. For example, just like Lee Jungseop Street in Seogwipo and Dumaengi Alley(두맹이 골목) in Jeju city, Hongrang-gil(홍랑길) can be developed as a sustainable contents using the love story between Jo and Hong, wall paintings and other cultural resources.

제1장 서론

조선시대의 형벌체계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여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5형(刑)으로 구분된다.¹⁾ 이 가운데 유형(流刑)은 중죄를 범했을 때 사형을 대신하여 도성에서 먼 곳으로 추방시키는 형벌이다.²⁾ 유배형에 해당되는 용어는 유(流)·배(配)·찬(竄)·방(放)·적(謫)·도(徙)·정배(定配)·부처(付處) 등이 있다.³⁾ 유는 아주 먼 곳으로 보내 살게 하는 것이며, 배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도록 배속시킨 것이다. 찬은 직첩(職帖)을 회수하는 특징이 있다. 방은 내쫓아 안치하는 것이며, 적과 도는 귀양을 보내 거주지를 옮긴다는 의미이다. 정배는 장소를 정해 죄인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거리에 따라 원지정배(遠地定配)·극변정배(極邊定配)·변원정배(邊遠定配) 등으로 구별된다. 또한 섬에 정배되는 것을 절도정배(絶島定配),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는 것을 감사정배(減死定配)라고 한다. 부처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가까운 지역에 유배시키는 것으로 자원부처(自願付處)·본향부처(本鄉付處)·중도부처(中道付處) 등이 있었다. 안치는 부처에 비해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형벌인데, 유배 지역 내에서만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자원안치(自願安置)·본향안치(本鄉安置), 그리고 가시가 있는 탕자나무를 울타리에 심어 철저히 감금하는 위리안치 등이 있다.⁴⁾ 중도부처와 위리안치는 특히 정치범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유형은 대부분 종신형이었다. 그렇지만 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중앙정계에 복귀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봉당정치로 인한 정치계의 갈등관계가 격화됨에 따라 국왕의 특명이

1) 『經國大典』, 「刑典」, 用律, “用大明律”.

2) 『大明律直解』, 「五刑名義」, “流者謂人犯重罪, 不忍刑殺, 流去遠方, 終身不得回鄉.” 『大明律直解』에 의하면 유형은 2천리·2천5백리·3천리 등 세 등급으로 거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우리나라 지형조건 상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430년(세종 12)에 각 도별로 3등급의 流配處를 각각 詳定하는 조치가 있었다(『세종실록』 권50, 1430년(세종 12) 윤12월 11일 정미).

3) 지철호, 1985, 「조선전기의 流刑」, 『법사학연구』 8, 한국법사학회, 124쪽.

4) 김의환, 2011, 「조선 중기의 流配刑과 流配 生活 -16세기 괴산과 성주의 李文樾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37쪽; 장선영, 2001, 「조선시기 流刑과 絶島定配의 推移」, 『지방사와 지방문화』 4, 역사문화학회, 171~173쪽.

있어야 배정되었던 극변(極邊)·절도(絶島) 지역이 유배지로 선호되는 경향도 강해졌다.⁵⁾ 절도가 유배지로 선호되었던 이유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였다.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로 유배를 많이 보냈다.⁶⁾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392~1450년 동안 총 25회에 불과했던 절도 정배가 1751~1800년에는 276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정철(趙貞喆, 1751~1831) 역시 제주도로 유배된 시기가 1777년(정조 1)이다.

지금까지 유배 연구는 주로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형벌로써의 성격이 강조되었다.⁸⁾ 최근 들어 유배 연구는 호적·문집·유배일기, 그리고 유배가사를 적극 활용하여 유배의 실제 운영 방식과 유배지에서의 생활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⁹⁾ 그중 제주도 유배인 연구는 주로 추사 김정희에 대한 논문들이 많고, 그 다음으로 동계(桐溪) 정온(鄭蘊)과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등 일부 인물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¹⁰⁾

- 5) 김경숙, 2006, 「17세기 후반 儒生 李必益의 유배생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31쪽.
- 6) 장선영의 논문에 따르면 제주가 81건, 거제가 80건, 진도, 흑산, 남해가 그 뒤를 잇고 있다(장선영, 2000, 「조선시기 유배와 절도정배의 추이」,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16쪽).
- 7) 장선영, 2001, 앞의 논문, 35쪽.
- 8) 김경숙, 1998, 「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사학연구』 55·56, 한국사학회; 신규수, 2012, 「朝鮮時代 流配刑罰의 性格」,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심재우, 2012, 「19세기 전반 평안도 지역 유배인의 성격과 유배행정 -『平安監營啓錄』순조대 기사분석-」, 『韓國文化』 5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洪淳晩, 1986, 「朝鮮末期 濟州島의 流配人과 形事制度」, 『濟州島研究』 3, 제주도연구회.
- 9) 김경옥, 2010,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김경숙, 2007, 「17세기 후반 한 儒生의 유배살이」,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심재우, 2001, 「조선후기 단성 지역 정배인의 존재 양태」, 『한국학보』 27-1, 일지사; —, 2012, 앞의 논문; 이종범, 2011, 「15세기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 양상」, 『역사학연구』 41, 호남사학회; 정연식, 2002, 「조선시대의 유배생활 -조선 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9,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정진영, 2013, 「섬, 풍요의 공간 -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입자도 생활-」, 『古文書研究』 43, 한국고문서학회; 최성환, 2011, 「조선 후기 추라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 2014, 「『두류단』을 통해 본 김평묵의 지도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2014,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2017,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20, 역사문화학회.
- 10) 강주진, 1987, 「벽과가문 출생의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동기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고정우, 1989,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탐라문화』 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김상태, 1999, 「추사 김정희와 낙산거인·석당인과의 관계연구」, 『서지학연구』 18, 서지학

조정철에 대한 연구는 『정헌영해처감록(貞軒瀛海處坎錄)』의 시문과 제주 여인 홍윤애(洪允愛, 일명 홍랑)와의 인연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박동옥은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분석하여 유배객의 생활 모습과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다.¹¹⁾ 송인영은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된 시를 분석하여 조정철의 제주도에 대한 의식변화와 유배생활을 검토한 바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인 조정철과 『정헌영해처감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시문을 분석한 유배생활 검토와 홍윤애와의 관계만 연구되어 왔다.

본고는 조정철의 시문집인 『정헌영해처감록』을 분석하여 유배인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현전하는 유배문화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된 내용은 첫째, 조정철의 생애와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정헌영해처감록』에 나타난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셋째, 조정철과 관련되어 현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유배문화자원을 살펴보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육지에서 건너 온 조선시대 선비의 섬 지방에서의 유배생활과 그와 관련되어 활용할 수 있는 유배문화콘텐츠를 파악하여, 향후 제주도 유배연구 및 제주도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 김성태, 2015, 「송시열의 제주유배 한시의 교육적 의미」, 『제주도연구』 44, 제주학회; 김유리, 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_____, 2012, 「규장 이견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김태수, 1992,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김홍철, 2011, 「김충암의 유배시 연구」, 『청대학술논집』 17, 청주대 학술연구소; 부영근, 2006,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 고찰」,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_____, 2006,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시 고찰」, 『동아인문학』 10, 동아인문학회; 양순필, 1989, 「북헌 김춘택의 제주 유배한시 고」, 『백록어문』 6,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_____, 1992, 「우암 송시열의 제주 유배시 소고」, 『백록어문』 9,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 11) 김만선, 2012, 「유배지에서 꽃핀 비운의 사랑, 정헌 조정철 -눈물겹고 애틋한 사랑 푸른 가슴에 간직하리-」, 『유배』, 갤리온, 2008; 김순이·표성준,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박동옥, 2007, 「정헌 조정철의 유배 한시 연구 -홍랑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17, 온지학회; _____, 2011,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2, 동양한문학회; _____, 2010a,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 『문헌과 해석』 50, 문헌과 해석사; _____, 2010b,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송인영, 2016, 「『靜軒瀛海處坎錄』에 나타난 趙貞喆의 意識研究」,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신정일, 2012,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안대희·이종목, 2011, 『절해고도에 위리안치 하라』, 북스코프, 207쪽; 홍순만, 1998, 「열녀 홍윤애 전」,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 12) 송인영, 2016, 앞의 논문.

제2장 조정철의 생애와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

조정철의 유배는 조선 정조 시해미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정헌영해처감록』은 조정철이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년, 총 13년간의 제주도 유배생활 중에 기록한 시문집이다. 2장에서는 조정철의 생애와 유배 경위 그리고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조정철(1751~1831)의 생애와 제주도 유배

조정철(趙貞喆)의 자는 성경(成卿), 호는 정헌(靜軒) 또는 대릉(大陵)이다.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참판을 지낸 조영순(趙榮順)의 아들로, 1751년(영조 27)에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는 숙종대 노론 사대신의 한 사람으로 우의정을 지낸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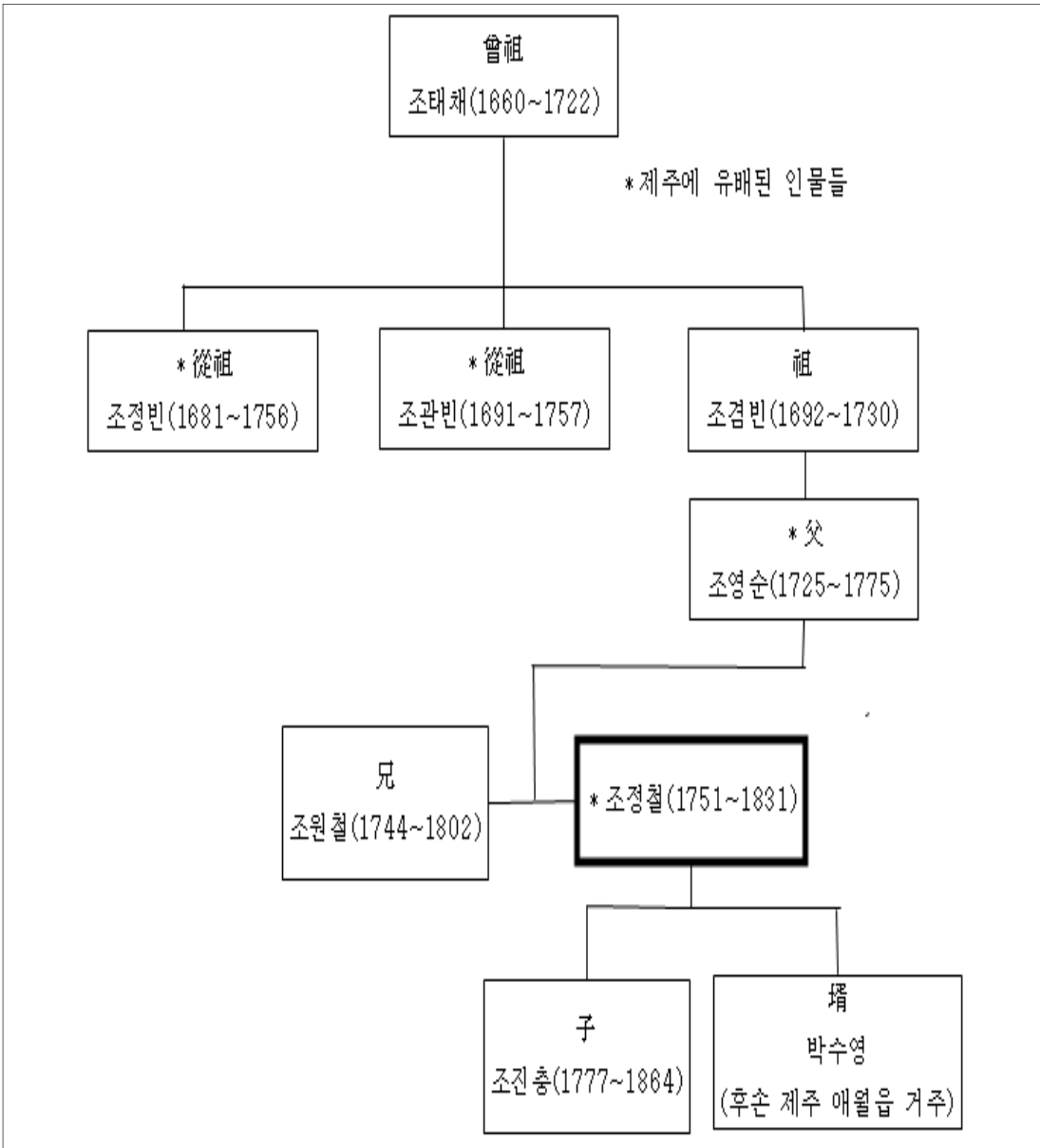
1722년(경종 2) 신임사화(辛壬士禍)¹³⁾ 때 우의정 조태채가 사사되면서 그의 아들 3명이 유배형에 처해졌다. 즉 큰아들 조정빈(趙鼎彬)은 제주도 정의현에 유배되었고, 둘째 아들 조관빈(趙觀彬)은 전라도 홍양현(현 고흥군)에 유배되었으며, 셋째 아들 조겸빈(趙謙彬)은 경상도 거제부로 유배되었다.¹⁴⁾ 그 후 1731년(영조 7)에 조태채의 둘째 아들인 조관빈이 탕평책과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되었다. 그런가하면 1754년(영조 30)에 조정철의 부친인 조영순이 봉당의 이익만 쫓았다는 이유로 제주도 정의현에 정배되었다.¹⁵⁾ 또 1777년(정조 1)에 조정철이 정조 시해미수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목으로 유배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조정철의 집안에서는 3대에 걸쳐서 4명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약 50년 동안 한 집안에서 4명이 제주도라는 특정 공간으로 유

13) 1721년(경종 원년)과 1722년(경종 2)에 일어난 사화로 소론(少論)의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등의 무고로 노론(老論)의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이 사사되었다.

14) 『경종실록』 권13, 1723년(경종 3) 12월 19일 갑자.

15) 『영조실록』 권82, 1754년(영조 30) 11월 27일 임인. 그러나 『양주조씨사료선집』(1994)에는 조영순이 1723년 1월 신임사화로 인하여 제주목에 유배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편집의 오류로 보인다.

배된 사례는 흔치 않다. 조정철의 가계 가운데 제주도에 유배된 4명의 계보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조정철의 가계도와 제주도 유배인¹⁶⁾

16) 이 가계도는 필자가 『양주조씨족보』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의 가계도는 조정철의 증조부인 조태채를 중심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조정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포함하여 그린 계보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철의 큰 종조부, 작은 종조부, 아버지, 자신에 이르기까지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쳐 4명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위의 계보도를 보면 조정철의 사위 박수영이 눈에 띄는데, 그는 조정철이 제주목 유배시절에 만난 홍윤애와의 사이에서 난 딸의 남편이다. 박수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밀양박씨가문 사람으로, 현재도 그 후손들이 제주시 애월읍에 세거하고 있다. 유배지로 내려온 조선시대 선비가 그 안에서 가족을 꾸려 새로운 생활을 하였고, 그 후손이 유배지였던 곳에서 정착하여 지금까지 세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조정철은 왜 제주도에 유배되었을까? 조정철은 스물다섯 살 때인 1775년(영조 51)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별검이 되었다. 그러나 그 뒤 홍국영(洪國榮)의 방해로 제대로 된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다. 당시 홍국영과 조정철이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게 되자 정조의 책봉을 반대했던 벽파들이 사도세자를 음해했던 일 등으로 정치적 보복을 당할까 염려하였다. 그러던 중 1777년(정조 1) 8월에 홍인한(洪麟漢), 홍지해(洪趾海), 윤양로(尹養老) 등이 정조를 시해하려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발각되었고, 전말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일으켰던 세력 중 한 명인 홍지해의 아들 홍상범(洪相範)이 자신의 종 감정(甘丁)을 조정철의 집에 보내서 드나들게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일로 조정철은 역모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왜냐하면 조정철의 장인이 바로 홍지해였기 때문이다.¹⁷⁾ 그 결과 조정철은 제주도로, 형 조원철은 기장현으로 유배되었고, 조정철의 처 남양홍씨는 어린 아들을 두고 자결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부분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조정철은 제주도에 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의 증조부가 노론 사대신 중의 한 사람이자 영조의 왕위 옹립을 주장했던 조태채였기 때문이다. 정조는 조태채의 공로를 참작해서 조정철에게 사사대신 유배로 은전(恩典)을 베풀었다. 그러한 정황이 『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17) 『정조실록』 권4, 1777년(정조 1) 8월 11일 갑진.

왕이 하교하기를, “조영순이 아직 살아 있다면 임금을 범한 부도한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가 죽었기 때문에 처형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아들 조정철은 역적 홍지해의 사위인데, 역적 홍상길의 공초와 감정의 말이 ‘매번 서찰로 부지런히 왕복하였다.’ 하였으므로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특별히 형신하지 않은 것은 그 할아버지 충익공 조태채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옥사가 결말났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도 매양 죄가 의심스러우며 가볍게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니, 국정의 죄인 조정철은 사형을 감면하여 절도에 안치하라.”하였다.¹⁸⁾

위의 내용을 통해 정조가 조태채에 대한 의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정철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했지만, 그의 증조부의 공으로 인하여 절도에 안치한 것으로 처벌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정철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조정철의 유배기간은 총 29년이다. 그 경위를 살펴보면, 1777년(정조 1) 제주목에서 시작하여 1782년(정조 6) 정의현으로 이배되었으며, 1790년(정조 14)에 추자도로 정배되었다. 1803년(순조 3) 나주목 광양현, 1805년(순조 5) 3월 금오도에, 1805년 5월 황해도 토산현 등으로 이배되었고, 1805년 7월에 해배되었다. 그 중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는 모두 13년이였다. 그런데 박동욱·안대회·이종묵 등은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를 추자도까지 포함하여 총 27년으로 보고 있다.¹⁹⁾ 하지만 당시 추자도는 전라도 영암군에 속해 있었다. 1832년에 간행된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영암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자도는 1896년에 고종이 완도군을 신설하면서 전라도 완도군으로 이관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제주도에 귀속되었다.²⁰⁾ 또한 『정조실록』에서도 “흉역(凶逆)의 여열(餘孽)들을 절도(絶島)에 정배하게 한 것은 법의(法意)가 매우 중한 것입니다. …… 추자도(楸子島)의 한 지형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섬은 서쪽으로는 진도(珍島)와 통해 있고 동쪽으로는 강진(康津)과 접해 있고 남쪽은 제주(濟州)로 갈 수 있으며 북쪽은 곧 영암군(靈巖郡)으로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 그곳을 관령(管領)하는 책임은 오로지 영암 고을

18) 『정조실록』 권4, 1777년(정조 1) 9월 11일 정유.

19) 박동욱, 2010b, 앞의 논문, 382쪽; 안대회·이종묵, 앞의 책, 207쪽.

20) 『대동지지』; 추자도지편찬위원회, 1999, 『추자도』, 선진인쇄사, 44쪽.

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자도가 영암군 소속임을 분명하게 밝혔
다.²¹⁾ 그래서 필자는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기간을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
년, 총 13년으로 추산한다.

조정철은 해배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811년(순조 11)에 통훈대부 제주
목사 겸 전라도방어사로 임명되어 유배지였던 제주도에 부임하였다. 해배된 후
유배지였던 곳에 지방관으로 부임한 사례는 흔치 않다. 그 후 1812년(순조 12)에
통훈대부 동래부사, 1813년(순조 13) 통정대부 충청도관찰사, 1816년(순조 16) 통
정대부 이조참의, 1822년(순조 22) 가선대부 이조참판, 성균관대사성, 1824년(순
조 24) 자헌대부 형조판서, 1830년(순조 30)에 자헌대부 사헌부대사헌과 지중추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정철은 1831년(순조 31)에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
다.

제2절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와 내용

조정철은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년, 모두 13년간 제주도에 있으면서 여
러 편의 시를 지었다. 이 시가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되어 있다. 『정헌영해처
감록』은 총 4권이며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정헌영해처감록』의 구성과 내용²²⁾

권	시기(년)	시수(詩數)	내용
권1	1777~1778	142	서문, 아들, 한탄, 종조 회헌 시 차운, 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왕에 대한 감사, 영조의 상(喪), 굴림 서원, 점고, 관리의 횡포, 기후, 잡영, 고독, 아내의 죽음에 대한 애도, 흉년, 제주에 대한 시, 한라산에 대한 시, 목사 김영수의 횡포, 곤궁, 일상, 슬픔과

21) 『정조실록』 권7, 1779년(정조 3) 6월 12일 갑자.

22) 이 표는 필자가 『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억울함, 보수주인 등
권2	1778~1779	156	한라산에 대한 시, 종조 회헌 시 차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영조 기일, 괴로움, 억울함과 슬픔, 기후(비 오는 날), 섬 인심에 대한 시, 관아에 대한 원망과 분함, 일상, 음식, 이웃 아이, 영조 탄일, 이웃사람, 아내 기일, 아버지 기일, 선조(先祖) 기일, 조상, 시 세, 동짓날 등
권3	1779~1780	177	종조 회헌 시 차운, 정월 초하루, 정월대보름, 일상, 곤궁함, 풍속, 점고, 한, 서종숙(庶從叔) 애도, 외사촌 누님애도, 외 6촌형 애도, 이창하에 대한 시, 목사 김시구의 황포, 홍랑의 죽음, 김시구의 밑계로 인하 옥살이, 옥 중의 슬픔과 억울함, 안핵어사 박천형 조사, 옥에서 풀려난 뒤 감회, 굴유품제, 보수주인 등
권4	1780~1782	160	정월 초하루, 감회, 우수(憂愁), 일상, 한탄, 풍속, 정루(亭樓)의 경치, 제주목 보수주인과 이별의 서운함, 정의현으로 이배, 굴림서원, 이배여정, 정의현 도착, 임금의 은혜, 기후, 서글픔, 외로움, 김성린, 탐라잡영, 사촌형 애도, 증조부 애도, 점고, 홍랑 묘비명 등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권1은 1778년(정조 2)에 쓴 자서(自序), 1809년(순조 9)에 유한준(兪漢雋)이 쓴 서문, 1824년(순조 24) 간행 당시 권상신(權常愼)이 쓴 서문 등이 실려 있다. 총 14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아들 생일을 축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은 종조부인 회헌 조관빈의 시를 차운한 것과 유배지에서의 한(恨)이 주된 내용이다. 그 밖에 제주도의 굴림서원, 기후, 흥년, 한라산 등을 노래하고 있다.

권2는 156수가 있는데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모습을 노래한 시와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보고 흥취한 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섬사람들의 인심과 이웃에 관한 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은 17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목사들과의 갈등, 홍윤애의 죽음, 목사 김시구의 밀계로 인한 옥살이 관련 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이 「귤유품제(橘柚品題)」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는 제주도 감귤과 유자에 관한 시로, 당시 제주도에에서 생산한 품종과 그 귤의 품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권4는 16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의 이배여정, 「탐라잡영(耽羅雜詠)」 등 제주도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시가 주를 이룬다. 특히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을 할 때 지은 시가 확인된다. 그 중 「탐라잡영」은 조정철이 자신의 작은 종조부인 회헌 조관빈의 「탐라잡영」 22수를 차운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기후, 제주도민의 생활상 등을 육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작성한 시이다.

이와 같이 『정헌영해처감록』은 유배인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한을 읊은 시문집이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자연과 생활상,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귤유(橘柚)의 종류 등을 전달해 주는 「탐라잡영」과 「귤유품제」 등 다수의 시들도 있어 단순히 유배인의 감정과 유배생활 모습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배지인 제주도의 모습과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또 조정철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하는 과정도 상세히 알 수 있어서 제주도에에서의 유배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제3장 『정헌영해처감록』을 통해 본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

조정철은 제주도에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시를 작성하였다. 이 시들 중 대부분은 조정철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정철은 굴림서원, 한라산, 기후 등 당시 제주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시들도 남겼다. 특히 「탐라잡영」과 「귤유품제」는 연작시로, 제주도의 지리·목장·부역·해녀·귤유(橘柚)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정철의 유배생활을 제주목과 정의현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제주목에서는 목사, 관관 등 제주 관리들과의 갈등관계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의현에서는 조정철이 바라 본 제주도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제주목 유배기(1777~1781): 제주 목사들과의 갈등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은 제주목사 김영수(金榮綬)와의²³⁾ 만남으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황이 『정헌영해처감록』에서 확인된다.

a-1. 새로 온 목사 김영수가 책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는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다. ‘조문석사(朝聞夕死)’의 뜻은 이미 볼 수 없게 되었다.²⁴⁾

a-2. 내가 굶주리고 병들어 억울한 곤궁 속에 초췌하게 메말랐는데, 목사 김영수와 그의 비장, 관리 등이 내 얼굴이 통통해지고 색깔이 두툼해졌으니 반드시 쌀밥

23) 김영수(金永綬, 1716~11786)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자는 중약(仲若)이다. 조부는 김두남(金斗南)이고, 아버지는 김홍석(金弘錫)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이다. 1744년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774년 가선대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제주목사가 되었다(제주도, 2008, 『제주특별자치도』 112, 제주도).

24)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63쪽.

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방으로 조사하고 공갈을 하므로, 곤액을 당함
이 날로 심해졌다.²⁵⁾

a-3. 김영수가 유배인을 엄숙히 단속했다. 보수(保授)를 불러들여 온돌을 때지 못
하게 하고, 맛있는 식사나 술·고기를 못 먹게 하며, 사람과 나그네를 만나지 못
하도록 법조항을 세워 불시에 적발하였다. 섬 안이 술의 물 끓듯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두려워하였다.²⁶⁾

a-4. 목사(牧師)와 관관이 내가 쌀밥을 먹는지 의심하여 날마다 살피면서 밥 먹을 때
여러 번 염탐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²⁷⁾

a-5. 관아에서 너무나 혹독하게 하여 집에서 온 편지가 오래 끊겼다.²⁸⁾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제주목사 김영수는 부임하자마자 조정철을 비롯하여 제
주도 유배인들에게 책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날마다 유배인들을 감시하며 밥 먹
는 것, 책 보는 것까지 간섭하였다(a-1). 그리고 김영수는 점고(點考)할 때 말라
빠진 조정철의 행색을 보고서도 얼굴에서 때깔이 나니 쌀밥을 먹은 것이라며 트
집을 잡아 욕을 보이기도 했다(a-2). 점고란 유배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
해 만든 제도이다. 대부분 원칙대로 점고를 실시하여 유배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대부 유배인들은 실제 직접 관아에 가서 점고를 받기보다 아
전들이 배소를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정철은
비록 사대부였지만 제주목 관아에 가서 목사에게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주목사
김영수는 조정철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로인 보수주인(保授主人)을
닥달하여 조정철을 가혹하게 다룰 것을 종용하였다(a-3). 보수주인은 조선시대
유배 온 죄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죄인이 도망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제주목사 김영수는 독서, 지역민과의 왕래, 소소한 식
사 등 조정철의 유배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김영수의 괴롭

25)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34쪽.

26)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31쪽.

27)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96쪽.

28)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54쪽.

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에 조정철의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정철이 제주도로 유배되어 심한 박해를 받은 것은 그의 처가가 정조 시해미수사건을 일으킨 홍계희(洪啓禧)의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홍계희는 사도세자를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홍계희의 아들 홍지해는 조카 홍상범과 함께 살수들을 궁에 난입시켜 정조 시해를 주도했다. 바로 조정철의 아내인 남양 홍씨가 바로 홍지해의 딸이었다. 조정철의 증조인 충익공 조태채가 노론 사대신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는 대신 유배형에 처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처가 식구들이 정조 시해미수사건의 주모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가혹한 감시와 압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제주목사 김영수는 조정철에게만 가혹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조정철과 같은 시기에 조완(趙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윤양후(尹養厚)의 일²⁹⁾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이배되어왔다.³⁰⁾ 김영수는 조완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그렇지만 김영수는 추운 날씨 탓에 털모자를 쓰고 점고에 참석한 조완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털모자를 벗겨 찢어버렸고, 조완을 염탐하면서 양식이 운반되어진 것을 밝혀내 보수주인과 거간(居間)에게 큰 벌을 주었다.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조완이 병이 들었다.³¹⁾ 이와 같이 김영수는 자신과 동문수학했던 친구마저 꺾박하였다.

조정철과 조완의 사례를 보면 김영수는 원칙적이고 책임감 있는 면을 보이지만, 사리분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김영수가 종을 시켜 역적의 아내와 교통(交通)하였으며 유배인들을 잘 감척하지 못하여 홍대섭(洪大燮)이 멋대로 행상(行商)을 하게 하였다고 한다.³²⁾

29) 조완은 당시 유배형을 당한 죄인 윤양후에게 선물을 보낸 일이 발각되었다. 이 일로 조완은 변방으로 정배당하였다(『정조실록』 권2, 1776년(정조 즉위) 12월 2일 기해).

30) 『정조실록』 권4, 1777년(정조 1) 9월 27일 기축의 기록은 “조완을 제주목에 이배하였다. 우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창성부(昌城府)에 정배한 죄인 조완은 귀양살이하고 있는 참인데도 거처와 범백(凡百)이 관부(官府)와 다름없이 하고 있어, 외람하고 교활한 것을 하는 버릇이 자못 지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합니다. 또 역적 조경(趙敬)이 나가 버린 뒤라 심각한 것을 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절도(絶島)에 이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였다.

31) 박동욱, 2010a, 앞의 논문, 155쪽.

32) 『정조실록』 권11, 1781년(정조 5) 6월 16일 정해; 그러나 『대동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공의 성품은 충직하고 청렴하며 근면하였다. 영조 때에 벼슬을 하면서 여러 차례 청렴과 근면한 관리 집의 훌륭한 자손이란 상감의 명령을 받았다. 여덟 번이나 군수의 부절을 찢고 일곱 번이나 곤전(綱錢)을 쥐었다. 나라를 위해서 정충(貞忠)하여 청백리가 되었다(박동욱, 2010a,

1781년 3월에 김영수가 제주도를 떠나자, 그의 후임으로 김시구(金蓍耆)가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김시구는 본관이 경주(慶州)이고 자는 몽휴(夢休)이다. 정치적으로는 소론계열이었기 때문에, 반대파에 속한 조정철을 좋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김시구는 부임하자마자 조정철에 대해서 밀고하는 자에게 면포 50필을 현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밀고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자신이 직접 조정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판관 황인채(黃麟采)와 공모하여 면천된 어린 기녀를 억지로 끌고 와 조정철의 적거지에 드나들었다는 죄를 씌워 장살(杖殺)하기 까지 하였다. 이후에도 김시구는 끊임없이 조정철을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김시구는 제주 여인 홍윤애가 조정철의 적거에 드나든 사실을 알아냈다.

홍윤애는 고려 말 정승 홍언박(洪彦博)의 후손으로, 15세기 초 홍언박의 손자 사재감 홍윤강(洪允康)이 제주도로 유망(流亡)한 후 지방향리로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었다. 아버지는 홍처훈(洪處勳)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다. 홍윤애는 조정철의 보수주인인 신호 부부의 소개로 조정철의 적거를 드나들며 조정철을 보살피주었다. 그러면서 조정철과 사랑을 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지냈다.³³⁾ 김시구는 홍윤애가 조정철의 적거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홍윤애를 잡아다 조정철의 비리에 대해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홍윤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했다.³⁴⁾ 김시구는 죄 없는 여인을 죽인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제주도 유배인들이 역당모의를 하였다고 조정에 거짓 밀계를 올렸다.³⁵⁾

1781년 7월 12일 조정에서는 자질과 경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제주도 삼읍(三邑)의 4장리(長吏)를 바꾸고, 어사를 임명하여 보냈다. 이에 제주목사 이양정(李養鼎), 판관 이형묵(李亨默), 대정현감 이양재(李亮載), 정의현감 이우진(李羽晉) 등이 관선(官船)으로 한꺼번에 부임하였다. 김시구의 밀계를 조사하여 거짓

앞의 논문, 163쪽.)” 위의 『정조실록』과 『정헌영해처감록』의 기록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33) 홍윤애는 조정철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그 딸은 밀양박씨 집안에 시집을 갔다. 그 사위의 후손들이 아직도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다.

34) 홍순만, 앞의 책, 67~84쪽. 그러나 박동욱의 논문에서는 홍윤애가 스스로 자결하였다고 한다 (박동욱, 2007, 앞의 논문, 16쪽).

35)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385~386쪽.

인지 진실인지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선전관(宣傳官)이 와서 닭이 울 때 김시구와 관련자 13명을 잡아갔다. 그리고 동이 트자 판관이 먼저 도임(道任)하여 도유(徒流)를 점고하고, 즉시 조정철과 다른 유배죄인을 잡아다가 모두 칼을 씌워 하옥한 후에 판관이 친히 죄인을 엄히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기록이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되어 확인된다.³⁶⁾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781년(정조 5) 8월 12일 안핵어사 박천형(朴天衡)이 진상 조사차 제주도로 입도하였다. 박천형이 제주도에 도착한 후 다음 날부터 사실의 진위를 조사하는데 의금부에서 추국하는 경우와 똑같이 하였다. 처음에는 먼저 여러 죄인에게 묻고 17일에 이르러 비로소 조정철을 잡아다 국문하였다. 조정철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였고, 박천형은 조정철을 옥에 가두었다. 이에 조정철은 김시구의 밑계로 인하여 다시 한 번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다음 시들은 조정철이 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b-1 남쪽 변방 5년의 유배살이

현옥(縣獄)에 10일 유폐되어
한 맺힌 추양(鄒陽)의 저녁
깊은 슬픔의 계자(季子)
잃어버린 새마(塞馬)를 보며
삶과 죽음 제우(齊牛)처럼 말기네
이 세상 진정 즐거움이라곤 없으니
어찌 막으랴, 지하에 떠돌을³⁷⁾

b-2 손과 발 삼목(三木) 속에 닫히고

거듭 곧 자물쇠로 단단히 잠겼네
일상생활 날마다 관원이 살피고
수화(水火)를 때때로 옥리(獄吏)가 제공하네
옥과 돌 모두 태우면 누가 구분하며
등과 가슴 쪼개려 하니 눈물 주체할 수 없네

36)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388쪽.

37)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389쪽.

바다가 뿔나무밭 변하는 60년의 일들
지금 같은 슬픔과 한(恨), 누가 나와 같을까³⁸⁾

b-3 차마 향양(桁楊)의 명령

감옥 속에 깊이 유폐되어
관원의 위엄 이 만큼 중하니
나의 죄 말해봐야 헛되네
오직 임금의 성덕을 축원할 뿐
법리(法吏)의 공정은 바라기 어려워
찬바람 칼 썩워 떨게 하니
모든 일 길이 막혀 눈물 흐르네³⁹⁾

위의 시들은 조정철이 제주도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당하였던 억울하고 슬펐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당시 조정철의 죄목은 대역죄로, 유배지인 제주목 감옥에서도 칼을 차고 손과 발이 거둬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움직일 수 없었다. 물과 불은 때때로 옥리(獄吏)에게 제공받는 서글픈 옥살이와 법리(法吏)의 공정을 바랄 수 없게 된 처지를 노래한 조정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어사 박천형은 조정철의 죄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혐의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에 박천형은 조정철의 보수주인이었던 신호(申好) 부부도 조사하였다. 이들은 조정철을 3년동안 관리했던 사람들이다. 박천형은 조정철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 신호 부부를 조사하면서 모진 형벌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 부부는 끝내 조정철의 무죄를 증거하였다. 그러던 중 이광복(李光福)이라는 자가 김시구의 사주로 포청(捕廳)에서 이천주(李天柱)라는 사람이 조정철에게 식량을 운반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였다. 박천형은 이 일을 빌미로 다시 신호 부부를 조사하였지만 이광복과 대질하면서도 결국 아무 것도 알아내지 못했다.⁴⁰⁾

1781년 10월 23일, 정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 들어 온 관리가 김시구의 밀계로 역모에 연루된 유배인들을 사면하고 다시 배소로 떠나라는 관문(關門)을 가지고

38)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392쪽.

39)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394쪽.

40)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06쪽.

왔다. 김시구의 밑계로 시작된 조사는 동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10월에 끝이 났다. 조정철은 결국 무혐의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조정철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되고 말았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정조실록』의 기사이다.

판의금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제주어사의 별단(別單) 가운데 주성(州城)에서 선소(船所)까지의 거리가 10리도 못된다고 하니, 조정철·심익운(沈翼雲) 같은 역얼(逆孽)이 육지의 상고(商賈)들과 체결하여 서울의 소식을 교통(交通)할 수 있습니다. 의당 조정철은 정의현에 이배하고 심익운은 대정현에 이배하여야 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⁴¹⁾

이처럼 박천형은 조정철 등의 유배인들이 제주목에 계속 있으면 육지에서 건너온 장사꾼들과 내통할 수 있으니, 제주목에서 다른 곳으로 이배하도록 보고한 것이다. 결국 정조가 이를 허용함에 따라 조정철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배소를 옮기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철의 제주목 유배기는 홍윤애와 신호 부부 등 현지민과의 교유도 있었지만, 주로 관리들과의 갈등에 매우 힘겹게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역모죄라는 이유로, 또는 자신과 다른 정치 파벌이라는 이유로 조정철은 관리들의 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또 역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조사 끝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모의 의심을 받게 되어 육지(한양)와 더 멀리 떨어진 정의현으로 이배되고 말았다.

제2절 정의현 유배기(1782~1790): 섬 주민들의 생활상

조정철이 정의현으로 이배되었을 당시 정의현감은 이우진(李羽晉)⁴²⁾이었다. 조

41) 『정조실록』 권13, 1782년(정조 6) 1월 14일 신해.

42) 이우진의 자는 성익(聖翼)이고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이방직(李邦稷)의 종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창문(李昌文)이다. 아버지는 이명복(李命復)이며, 어머니는 허원(許垣)의 딸이다.

정철은 이우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우진은 관아에 도착한 이후 여러 가지로 죄인을 지키는 신법(新法)을 만들었고, 백성이 병들고 괴로워해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상관을 염두에 두어 죄인 지키기를 최상의 실적으로 삼았다.”⁴³⁾ 정의현감 이우진 역시 조정철에게 있어서 좋은 관리는 아니었다. 이런 까닭에 조정철의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그러한 사정이 『정현영해처감록』에서 찾아진다.

c-1. “날마다 세 번 죄인의 적소에 부정이 있나 캐내려 살피며 일이 있든 없든 관에 보고하기를 변경에 야간 순찰의 예와 똑같이 하였다. 따뜻한 옷, 배불리는 음식도 큰 죄로 삼은 것은 현감 이우진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⁴⁴⁾

c-2. “오가작통하여 사방에 이웃을 끊고, 통수와 더불어 한 죄인을 지키도록 하여 동정을 기찰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⁴⁵⁾

c-3. “제주목과 대정현 죄인은 모두 갓을 쓰고 점고에 응했는데, 정의현은 그것을 금지하여 모두 패랭이를 쓰고 새끼 끈을 매었다.”⁴⁶⁾

위의 사례는 정의현감 이우진이 만든 새로운 법이다. 이우진이 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유배인들을 괴롭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아에 도착한 이후 여러 가지로 죄인을 지키는 신법(新法)을 만들고 상관을 염두에 두어 죄인 지키기를 최상의 실적으로 삼은’ 점에서 이우진의 권력욕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편의대로 유배인들과 섬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상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제주목 때와 마찬가지로 조정철의 정의현 유배생활은 관리들과의 갈등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현지의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롭고 힘든 유배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그 중 김성린은 조정철의 정의현 유배생활 가운데 가장 의지했던 인물이었다. 김

43)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6쪽.

44)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6쪽.

45)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97쪽.

46)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97쪽.

성린은 정의현 서쪽 사람으로, 유생이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시와 문에 능하였으며 주변 평판도 좋았다. 조정철은 김성린이 마치 친 골육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하였다.⁴⁷⁾ 이처럼 조정철이 김성린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조정철의 정의현에서 생활은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목보다 힘들었으나, 김성린과 같은 제주도 선비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주도라는 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정철이 제주목에 있을 때 쓴 시의 대부분은 섬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제주목 때와 다르게 조정철이 정의현에서 작성한 시 중에는 당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상을 전달해 주고 있는 「탐라잡영(耽羅雜詠)」과 「귤유품제(橘柚品題)」 등의 시가 보인다. 이 시들은 제주도의 지리, 산물, 풍속, 풍토 등을 다루고 있다. 조정철은 유배 초장기에도 제주도의 지리나 풍속, 풍토 등에 대한 시를 쓰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조정철이 정의현으로 이배된 이후에는 제주도의 기후와 한라산, 귤유(橘柚) 등에 관련된 시문의 경우 조정철 자신의 감정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는 그대로,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되어 있는 시중에서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1. 높이 솟은 영주산 바라보니

어지러운 세상길 막아섰네
땅에 천년설 쌓이고
하늘엔 반나절 구름 덮였네
작은 먼지도 원래 닿지 않았으니
외로운 학 울음소리 더 들을 수야
못 앞의 사슴에게 말하노니
내 장차 너의 무리와 더불어라⁴⁸⁾

d-2. 나그네 하물며 일찍 장기에 괴로웠거늘

계절이 바뀌니 또 더위에 시달리네.

47)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70쪽.

48)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01쪽.

찌는 습기 집을 에워싸고
 타오르는 태양, 처마 끝에 빛을 내네.
 황매는 병들어 빛이 바랜 듯
 흰 모시면 바람이나 통할까
 자려 해도 도리어 잠 오지 않고
 흰 벽은 전부 좀벌레와 파리떼.⁴⁹⁾

d-3. 탐라(耽羅)의 무더위 화로보다 더 한데
 하물며 미개한 풍속 세상에 없으니
 곡식이 담장 너머 자란 걸 모두 촉(蜀)이라 하며
 늙은 소의 가쁜 숨과 달을 오(吳)라고 말하네.
 모기에 물려 조용히 잘 수 없고
 음습하여 찢 때면 더위에 죽을 지경
 유배 온 인생 한숨 쉬며 견디니
 몹시 곤궁함 천하에 누가 나 같을까.⁵⁰⁾

위에 3편의 시는 한라산의 모습과 기후를 조정철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먼저 d-1의 경우 천년설은 눈이 쌓인 한라산을 의미하며, 못은 백록담을 지칭한다. 마지막 구절에 지금 적거지를 떠날 수 없지만 나중에 자신도 한라산에 가고 싶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d-2에서 조정철은 제주도에서의 유배생활이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벌레도 많음을 표현하며 몹시 괴롭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풍토병에 걸린 것도 있지만 벌레가 아주 많고 더위가 심해 괴로움이 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d-3에서 조정철은 제주도의 기후에 대해 너무 덥고, 풍속은 ‘미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농사짓는 것이나 기후는 중국의 촉나라와 오나라 지역과 같은데, 모기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사납고 날씨는 습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인심과 풍속에 관한 시이다. 제주목사 이형상이 저술한 『남환박물(南宦博物)』에서 제주도의 풍속은 ‘어리석으나 검소하고 예의와

49)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16쪽.

50)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115쪽.

겸손함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마을에 도적이 없어 가상하고 놀랍다고도 했다. 반면 조정철이 쓴 제주도의 풍속에 대한 인심은 다음과 같다.

대개 탐라라는 섬
인심이 천하에 고약해
멀리 떨어져 왕화(王化)를 펴기 어려워
가까운 일본 풍속에 쉽사리 몰드네.
태수(太守)는 용맹하여
육식(肉食)을 오직 욕심내며
교활한 관리도 또한 심하여
모두 다 악착같네.
보통 하는 말 끝에도
교활하고 독살스러워
마주치며 밧줄을 늘어뜨리고
돌아서면 곧 돌을 떨어뜨리네.
늙은이 젊은이 차례 차리지 않아
형제간에 원수가 되네.
오륜(五倫)은 이미 말할 것 없고
사유(四維)를 어느 겨를에 닦하여 말하랴
가련한 선비들
오히려 배운 것도 펴지 못해
입으로는 성현(聖賢)의 말씀 외우나
관원을 꼬드겨 먼저 채찍질 부추기네.
나 같은 사람 저절로 잡도리 두려워
오는 손님 한결같이 물리고
온종일 빈 처마 밑에서
쓸쓸히 대밭을 드리우네.⁵¹⁾

이렇듯 조정철은 제주 인심은 고약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왕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왕화(王化)를 입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본과 가까워

51)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247쪽.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정철은 제주도 사람들을 “가련한 선비들, 입으로는 성현의 말씀을 압송하지만, 관원에게 빌붙어서 먼저 채찍질 부추기네. 나 같은 사람 저절로 잡도리 두려워.”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위의 시 내용과 더불어서 조정철이 제주도라는 귀양지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제주도의 경계에 대한 시이다.

e-1 제주목사의 큰 아문

방어사 겸 방면책임 존귀하니
토지와 군사, 백성 모두 그에 속해
동서 양쪽 방면의 현 관아 남아있네.⁵²⁾

e-2 온 섬이 겨우 4백리

정의성은 가장 바다의 동쪽 끝
샘물은 장기가 있어 사람이 마시기 어려워
예부터 죄지은 신하 모두 이 고을에 보냈네⁵³⁾

위의 시들에서 보건데 2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는 제주도의 행정편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의 강역에 관한 것이다. 먼저 조정철이 쓴 e-1의 시문에 대한 조정철의 해설에 “1416년 안무사 오식(吳湜)의 계로 한라산 남쪽 강역 2백리 땅을 잘라서 동쪽 방면을 정의(旌義)로 삼고, 서쪽 반면을 대정(大靜)으로 삼아 현(縣)을 설치하여 현감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태종실록』에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제주에 군(郡)을 설치하던 초기에 한라산(漢拏山)의 4면(四面)이 모두 17현(縣)이 있었습니다. 북면(北面)의 대촌현(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 읍으로 삼았습니다. …… 이제부터 본 읍에는 동도(東道)의 신촌현(新村縣)·함덕현(咸德縣)·금녕현(金寧縣)과 서도(西道)의 귀일현(貴日縣)·고내현(高內縣)·애월현(厓月縣)·곽지현(郭支縣)·귀덕현

52)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4쪽.

53)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5쪽.

(歸德縣)·명월현(明月縣)을 소속시키고, 동도(東道)의 현감(縣監)은 정의현(旌義縣)으로서 본 읍을 삼아 토산현(兎山縣)·호아현(狐兒縣)·홍로현(洪爐縣) 등 3현(三縣)을 소속시키고, 서도(西道)의 현감(縣監)은 대정현(大靜縣)으로서 본을 삼아 예래현(猓來縣)·차귀현(遮歸縣) 등 2현(縣)을 소속시키라” 청하고 있다.⁵⁴⁾

이렇듯 제주도의 3읍 행정조직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다음 하부조직의 개편은 1609년(광해군 1)에 이르러 3읍 8면이었다. 이 하부조직은 조선 후기에 부분적으로 개정이 있었지만, 고종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졌다. 이후 1864년(고종 1) 8월 30일에 중앙정부는 제주목의 정의현과 대정현 2개 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제주목 관할에서 분리시켜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로 편제하였다.⁵⁵⁾

다음은 제주도의 강역과 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철은 e-2 시문에서 “탐라의 강역은 4백리이다. 제주목에서 동쪽으로 정의현 경계까지 80리이고, 서쪽으로 대정현까지 81리이다.”라고 쓰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탐라의 강역은 동쪽은 정의현(旌義縣) 경계까지 80리 이고, 서쪽은 대정현(大靜縣) 경계까지 81리 이며, 남쪽으로는 바다까지 1백 20리이고, 북쪽으로 바다까지 1리 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철이 기술한 것과 유사하다.

다음은 제주도 관리에 관한 것이다. 『중종실록』 중 송인수(宋麟壽)에 대한 기사이다. “송인수가 채무택(蔡無擇)과 결탁하여 김안로(金安老)에게 붙었다가 그 뒤에 사당(邪黨)임을 깨닫고 배반했다. 김안로가 심히 그를 미워하여 제주목사로 임명해 쫓아내었고, 송인수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고을을 버리고 올라왔다. 이 때문에 논죄했는데 해당된 울보다 엄한 울로 다스리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송인수는 조정의 명령 없이 직책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가 권력다툼에서 패배한 게 아주 분했음을 알 수 있다.⁵⁶⁾ 제주목사는 이처럼 반대파를 밀어내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만큼 기피되는 관직이었다. 이에 대한 조정철의 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정의현감 요패는 구리이고

54) 『태종실록』 권31, 1416년(태종 16) 5월 6일 정유.

55) 『세종실록지리지』; 제주도, 2006, 『제주도지』 2, 제주도; 향토문화전자대전(jeu.grandculture.net)

56) 『중종실록』 권77, 1534년(중종 29) 7월 22일 정해

관직에 있으려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적거나 마찬가지로
때문에 문무로 여기 부임하는 자
거의 반이 먼 고장사람 아니면 흰 늙은이⁵⁷⁾

이렇듯 신임 관리들은 제주도 부임을 기피하였다. 이에 대해 『정헌영해처감록』에는 ‘정의는 절도에 작은 현으로 임관되는 자는 중인·서열이 아니면 세력 없는 자나 늙은 사람들 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목사로 임명받았다가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⁵⁸⁾

다음은 제주도의 부역에 관한 내용이다. 15세기에 조선 정부는 제주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였다. 제주도민이 유민이 된 원인으로는 중앙 관리와 지방 토호의 이중수탈, 왜구의 빈번한 침입, 지나친 진상과 그에 따른 부역의 증대 등으로,⁵⁹⁾ 그 결과 제주 유민은 포작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났다. 즉 제주도민이 제주를 떠나 떠돌이 생활을 자처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된 시에서 제주도민의 부역실태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황구침정 백골포
용역의 불공평 이 고을에 많아
갖가지 장인의 육고와 삼위
지금 하소연 할 수 없으니 그를 어찌할까⁶⁰⁾

조정철은 제주도 사람들의 부역에 대해 “배의 키잡이에서 말총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공장(工匠)의 손가락이 구부러졌다. 전복잡이, 테우리, 유군(遺軍), 배결군, 북쟁이, 지장(紙匠)의 여섯 가지를 육고역(六苦役)이라 한다. 갑사(甲士), 무학(武學), 정로위(定虜衛)의 세 가지를 삼위(三衛)라고 한다. 기타 역(役)의 이름도 매우 많아 백성들이 요역(徭役)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썼다. 당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부역에 시달렸는가를 알 수 있다. 부역을 견디다 못해 제주

57)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5쪽.

58) 『연산군일기』 권49, 1503년(연산군 9) 5월 22일 정해.

59) 장혜련, 2006, 「조선 중기 제주 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57쪽.

60)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7쪽.

도민들이 유민으로 전락하였고, 급기야 조선정부는 1629년(인조 7) 8월 13일에 제주도민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다음은 제주도의 목장에 관한 내용이다. 제주도에서는 1276년 몽골이 설치한 탐라목장이 제주지역 목장의 효시이다.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십소장과 산마장이 있었다. 부속도서에서도 소를 사육했는데, 가파도(加波島)의 별둔장(別屯場)과 말을 사육했던 우도목장(牛島牧場)이 있었다. 1894년에 공마제(貢馬制)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국영 목장들이 사라졌다.⁶¹⁾ 이러한 실태에 대해 조정철은 다음과 같은 시들을 지었다.

f-1 공사의 소와 말 각각 둔집을 이루고

비단구름처럼 천만 개 무리로 흩어져 늘어나네
감목은 어린 말 길들이기 마땅한 직책인데
지금의 태수는 혹 부지런히 할는지⁶²⁾

f-2 정의현 서면 의귀촌에

요노 화류 몇 필이 있었기에
말을 바쳐 아직까지 전해오는 김만일
동장을 대대로 임금의 은혜가 있네
수많은 산마 삼장에 줄지어⁶³⁾

f-3 수많은 산마 삼장에 줄지어

옛날 어떤 사람이 이 담장 쌓았던가
듣건대 근래 김영수가
백성을 편리하게 한 계책 도리어 아득히 멀어졌네⁶⁴⁾

조정철은 『정현영해처감록』에서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 제주의 목장은 우리나라로 환속되었지만 아직도 국둔마(國屯馬)를 원둔마(元屯馬)라고 부른다.”라고 기

61) 향토문화전자대전(jeju.grandculture.net)

62)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9쪽.

63)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89쪽.

64)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90쪽.

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원나라 때부터 제주도에서 말을 기르기 시작했고 원의 목장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원둔마라 칭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철이 제주목에 있을 때인 1780년에는 제주목사 김영수가 말을 관리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간장(間場)을 쌓았다. 하지만 1782년에 안핵어사 박천형이 간장을 없애 버렸다.⁶⁵⁾

다음은 제주도 여인에 대한 내용이다. 즉 잠녀 혹은 해녀에 대한 기록이다. 1702년에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은 “섬의 풍속이 남자는 전복을 따지 않으므로 다만 잠녀에게 맡긴다.” “관에 잠녀안(潛女案)이 있는데 진상하는 전복은 모두 잠녀에게 책임 지운다.”라고 하고 있어 해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⁶⁶⁾

g-1 잠녀의 옷 한자로 짚아

알몸으로 만경 파도에 무자맥질
요즈음 일은 버겁고 어물은 잡기 어려운데
채찍질 예사로 몇 번을 관아에서 다스리던가⁶⁷⁾

g-2 정의성 소녀들 띄약벌에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에
十字 길 끝 저자거리
허벅지고 물 길러 가며 재잘거리네⁶⁸⁾

위의 시를 통해 제주해녀의 의복과 정의현 소녀들의 의복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육지에서 여인들이 입는 옷과 다르게 제주도의 여인들은 한 자가 짧다. 더구나 잠녀들은 알몸으로 물질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해녀들은 잠수복과 같은 해녀복을 입는 것과 달리 조선 후기의 해녀들은 알몸으로 물질을 한 것이다. 더구나 관에 진상해야 하는 물건 때문에 해녀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해녀들의 일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아에서는 진상품을 위

65) 남도영, 2003,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73쪽.

66)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역, 2010, 『남환박물』, 푸른역사

67)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91쪽.

68)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91쪽.

해 해녀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음을 위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제주 여인들이 해녀라고 할 수 없지만, 정의현 소녀들의 모습을 통해 제주 여인들의 활동적인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육지에서 보지 못한 ‘아래로 치마도 아니고 위로 적삼도 아닌 옷’을 입은 소녀들을 보면서 제주 여인들의 옷차림은 활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육지의 유학자인 조정철의 눈에는 그런 제주도 여인들의 모습이 무척 신기했을 것이다.

탐라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
남자 적고 여자 많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네
테우리와 개척자도 오막살이 아래서
처와 첩두기가 절로 풍속이 되었네⁶⁹⁾

조정철은 이 시에서 제주도의 여초(女超) 현상, 즉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현상의 연원이 오래되었으며 테우리(목자)와 개척자(농부)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조차도 축첩(蓄妾)을 한다고 기록하였다.

이렇듯 조정철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되면서 제주도라는 섬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정의현에서 생활하면서 자세히 보고 있다.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제주도민이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정철은 제주목에서 자신도 힘들고 억울하게 유배되어 제주도라는 공간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정의현에서는 지리, 산물, 부역 등 제주도를 바라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69)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590쪽.

제4장 조정철의 유배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이 장에서는 현전하는 조정철 관련 유배문화콘텐츠의 종류와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정철이 유배 와서 만난 제주 여인 홍윤애와 관련된 자료, 조정철이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교유하면서 만들어진 유배문화콘텐츠, 그리고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된 시문을 통해 조정철과 홍윤애에 관한 문화자원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활용해나갈지 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홍랑의 길

홍윤애는 고려 말의 정승 홍언박(洪彦博)의 후손으로, 15세기 초 홍언박의 손자 사재감 홍윤강(洪允康)이 제주도로 유망한 후 지방향리로 몰락한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홍처훈(洪處勳)이고 어머니는 전주이씨다.⁷⁰⁾

홍윤애는 조정철이 유배된 지 3년이 지나갈 무렵인 1779년(정조 3년) 겨울부터 적소를 드나들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⁷¹⁾ 이후 이들은 연인 관계로 진전하여 1781년(정조 5년) 2월 30일 마침내 홍윤애는 딸을 분만하였다.⁷²⁾

1781년 3월에 김시구(金蓍耆)가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김시구는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었던 조정철을 제거하고자 조정철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다. 그러던 중 조정철의 거처를 출입하던 홍윤애를 발견하게 된다. 김시구는 홍윤애를 잡아서 조정철의 죄목을 만들기 위해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홍윤애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홍윤애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⁷³⁾ 홍윤애의 장례식 날에 조정철은 비통한 마음을 담아 “6월 2일 새벽 해로소리가 들려 물어보니 홍윤애의 발

70) 홍순만, 앞의 책, 67쪽.

71) 홍순만, 앞의 책, 74쪽.

72) 홍순만, 앞의 책, 77쪽.

73) 홍순만, 앞의 책, 80~82쪽.

인인테 가련하고 참담하여 일어나 절구 하나를 적었다.”라고 쓰면서 홍윤애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⁷⁴⁾

홍윤애가 죽자 김시구는 곤란해 졌을 것이다. 아무리 선참후계의 특권을 지닌 제주목사라하나 그것은 대역죄나 살인죄의 경우일 뿐이다. 죄상도 명확하지 않은 여인을 죽인 김시구는 제주목의 유배인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짓 밀계를 조정에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바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어사를 파견하였다. 조정철을 비롯한 유배인들은 매우 엄격한 조사와 고문을 받았다. 거짓 밀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조정철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역모의 의심은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되었다.⁷⁵⁾

1805년(순조 5) 조정철이 해배된 후에는 다시 관직에 나아갔고, 1811년(순조 11)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스물일곱의 젊은이가 육십 초로의 늙은이가 되어, 유배지였던 제주도로 다시 돌아 온 것이다. 조정철에게 제주도는 일생의 황금 같은 청춘을 읊아맨 눈물의 땅이자, 평생을 잊지 못할 여인 홍윤애와의 인연을 맺어준 그리움의 땅이었다. 제주목사로 부임한 조정철은 홍윤애의 무덤을 찾았다. 조정철은 제주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받은 녹봉을 전부 딸을 위해 썼다. 또한 조정철은 홍윤애의 무덤을 새로 조성하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잃은 홍윤애를 의녀(義女)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홍윤애와 무덤에 얹힌 이야기와 홍윤애의 무덤과 <洪義女之碑>라 비석이 현전하고 있다.

74)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387쪽.

75) 홍순만, 앞의 책, 83쪽; 조정철 저, 김익수 역, 앞의 책, 400~430쪽, 504쪽.

十七世 館同知成均館事 五衛都摠府副摠 管字成卿 辛 未(一七五二)二 月二十日生 英 祖五十一乙未 (一七七五)文科 大司成 同知成 均館事 吏曹參 議 參判 純祖 辛未入者社 終 配贈貞夫人 南陽 洪氏趾海女 己 巳(一七四九)十 月四日生 丁酉 (一七七七)九月 二十七日終 壽 二十九 墓長湍 庚辰年移葬 于 延豐安富驛前庚 坐有一男 配貞夫人寧越辛氏 師倫女 乙未(一 七七八)二月 六日生	十八世 摠府副摠管 丙 諱準錄 字景祖 丁酉(一七七七)正月四日生 甲子(一八六四) 十一月八日終 壽八十八 墓長 湍庚辰 移葬于 延豐安富驛乾坐 配慶州李氏慶嗣女 天休堂后 己亥 (一七七九)七月 十一日生	十九世 月二十日生 當 寧壬午(一八二 二)生員 乙未(一 八三五)以給 林 登文科大司 成 忠清右道暗 行御史 入都堂 憲宗甲辰陳賀時 宣教官加資承旨 參議加資 戊午 (一八五八)終 壽五十五 墓 進士有敬女 壬 戌(一八〇二)八 月十日生 終
女金重鉉 金海人 陰同樞 父聖祚 生父 贈參判坦祚 子 濟漢 濟鎮 女 李裕景天休堂后	女朴秀榮 密陽人 父同樞 師源 子奎煥 女金錫麒生員 康履級縣監	女宋惇熙

<그림 2> 『양주조씨족보』(1980)

그리고 조정철은 딸과 사위를 자신의 족보에 수록하였다. 위의 <그림 2>를 보면, 조정철은 자신의 부인으로 홍윤애를 넣지 못했지만, 홍윤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족보에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현재 제주시 애월읍에서 세거하고 있다.



<그림 3> 홍윤애의 무덤 터



<그림 4> 홍윤애의 무덤

위의 <그림 3>은 홍윤애의 무덤 터를 안내한 표지판이고, <그림 4>는 현재 홍윤애 묘이다. 원래 홍윤애의 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 1동 전농로에 있

었다. 그런데 1936년에 제주공립농업학교가 들어서면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로 이장하였다. 현재 홍량의 원래 무덤터와 현재 무덤이 있는 위치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홍랑길과 홍랑묘 위치

1980년에 발행된 문중족보까지는 조정철과 홍윤애의 딸은 인정했어도 홍윤애를 정식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97년에 11월 9일에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양주조씨(楊洲趙氏) 문중사당인 함녕재(咸寧齋)에서 홍윤애를 조정철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문중사당에 봉안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초헌관은 양주조씨대종회 조원환 회장, 아헌관은 사위 박영수의 후손 박용진, 종헌관은 제주문화원 홍순만 원장이 맡았다. 제주도에서는 홍윤애를 의녀로써 추모하고 제주도 최초로 여성 이름이 들어간 길을 조성하였다. 바로 홍량의 길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홍윤애를 추모하는 공연과 문화제 등을 통해 홍윤애와 관련된 문화자원 활용시도하였다.⁷⁶⁾ 그러나 홍랑과 관련된 공연은 3일 공연에 1억 원

76) 2002년 오페라 백록담, 2014~15년 춤, 홍랑 공연, 2015년 용연선상음악회 1부 끝에 군무, 토크

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2002년에 만든 홍윤애를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 백록담은 2009년에 제주시에서 저작권을 등록된 뒤에는 한 번도 공연을 하지 않았다. 2015년 홍랑길에서 보름 간 시화전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고 2016년 7월~10월 매주 토요일에 총 8회에 걸친 생활문화콘서트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⁷⁷⁾ 이 처럼 공연, 전시 등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렸고, 추모문화제 역시 지금은 재정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⁷⁸⁾



<그림 6> 홍랑길 표지판



<그림 7> 홍랑길 첫 건물

본고에서는 홍윤애의 문화자원 활용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관광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1년에 제주시는 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 의뢰한 ‘공공시설물 문화명칭 및 안내판 내용 연구 조사’ 용역보고회를 가졌고, 이때 홍윤애의 무덤 터가 있는 전농로의 일부를 ‘홍랑길’로 개칭하였다(<그림 8> 참조).⁷⁹⁾

콘서트 및 시화전, 2016년 생활문화콘서트, 2013~2017년 추모문화제

77) 『뉴시스』, 2016-07-21, 「제주시, 홍랑길 생활문화콘서트에 초대」

78) 『한라일보』, 2017-07-04, 「‘제주 의녀 홍윤애문화제’ 사비 들여 잇는다. -홍윤애를 사모하는 모임, 8일 유수암 홍윤애 묘역-」

79) 『뉴시스』, 2011-08-05, 「제주시 도로·광장·공원 237곳에 특성 살린 명·별칭 부여」



〈그림 8〉 홍랑길과 무덤 터

홍윤애 관련 문화자원은 홍랑길을 비롯하여 홍윤애의 무덤, 그리고 조정철이 세운 묘비가 있다. 홍랑길의 경우 홍윤애의 원래 무덤이 있던 자리와 함께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골목길로 형성되어 있다. 최근 각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화하여 관광사업으로 연계한다. 홍랑길처럼 스토리가 있는 길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랑과 조정철의 만남부터 사랑, 김시구의 발각과 홍랑의 고문, 순절 등의 테마를 구성하여 홍랑길에 벽화를 조성한 다음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홍랑의 길’이 아

년 스토리가 있는 길로 하나의 테마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중심 길인 올레길과 연계하여 자연 관광 뿐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의 길로 편승하여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 5>를 보면 현재 홍랑길의 위치와 지금 홍랑 묘의 위치가 떨어져 있는데,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주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홍랑’이라는 주제를 통한 역사문화테마의 관광 자원 활용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절 조정철의 유배길

조정철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유배되어 가는 노정이 『정현영해처감록』에서 확인된다. 총 1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 성읍으로 가는 길에 해당하는 노정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다음은 조정철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배소를 옮겨가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조정철의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의 이배여정

번호	시제목	내용
①	임발감서(臨發感書)	출발하기 전 감회
②	소민문을 나오며(出蘇民門)	조정철이 적거지에서 출발
③	동문을 나서며(出東門)	이배를 출발하여 동문을 나옴
④	동문 다리 위에서 쉬며(暫憩東門橋上)	동문 다리 위에서 쉬면서 씬
⑤	바다를 보며(一末觀海 及承移配之命 出東郭也 試登斷壟而望之)	유배기간 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으나 이배되어 가는 도중 절벽에서 바다를 본 감회
⑥	고닛모루에서(果園峴駐馬)	고닛모루에서 말을 잠시 멈춤
⑦	거루에서(巨里道上口占)	거루 길 위에 잠시 머물렀음

⑧	봉개악에서(到峯蓋嶽村)	봉개악에서 하루 묵음
⑨	세은쇄 앞길에서(細隱刷前路記所見)	세은쇄 앞길을 바라봄
⑩	당남송이를 지나며(過唐南松)	당남송이를 지나감
⑪	켓드르에서(怪坪途中)	켓드르를 지나감
⑫	눈피에서(臥乎山)	눈피를 봄
⑬	송당에서(松堂途中)	송당 가는 도중임
⑭	백약이오름에서(秀峯前路口號)	백약이 오름 앞길에서 한탄함
⑮	이배의 억울함(至有移配之舉而極矣 以道悲冤之懷)	유배와 자신은 조심하며 지냈는데 이배되니 억울하다고 함
⑯	활피에서(弓山途中)	활피 가는 도중임
⑰	독버르니에서(望德峙望旌義縣)	독버르니에서 정의현을 바라봄
⑱	정의현에 도착하여(到配旌義縣)	정의현에 도착함

위의 <표 2>는 조정철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 갈 때 그가 쓴 18수의 시이다. 조정철은 적거지를 출발하여 제주목 관아에 보고한 다음 제주성 동문에서 정의현으로 출발하였다. 제주성 동문이 있었던 자리가 파출소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철거되고 없다(<그림 9> 참조). 과원현(果園峴) 즉 현재의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근처를 지나고, 거리(巨里), 오늘날 거루마음이 입지한 화북 2동을 지나, 봉개악(峰蓋嶽)에서 휴식을 취했다. 봉개악은 봉아름이라고 칭하는데 현재 봉개동이다. 조정철은 다음날 봉개악에서 출발하여 세은쇄(細隱刷; 가는새), 현동회천을(<그림 10> 참조) 경유하여 당남송이〔唐南松〕와 켓드르〔怪坪〕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정현영해처감록』에는 당남송이와 켓드르를 각각 조천읍 와흘 남쪽 취락과 조천읍 와흘 남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눈피(臥山)는 지금의 조천읍 와산마을이며, 송당(松堂)은 구좌읍 송당리이다. 백약이오름〔秀峯〕은 오늘날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활피(弓山)는 1950년대 초 표선면 성읍 2리로 편성되었다. 독버르니(德峙)는 현재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 마을로, 조정철이 성읍지나 정의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12> 참조).



<그림 9> 동문파출소 (옛 제주성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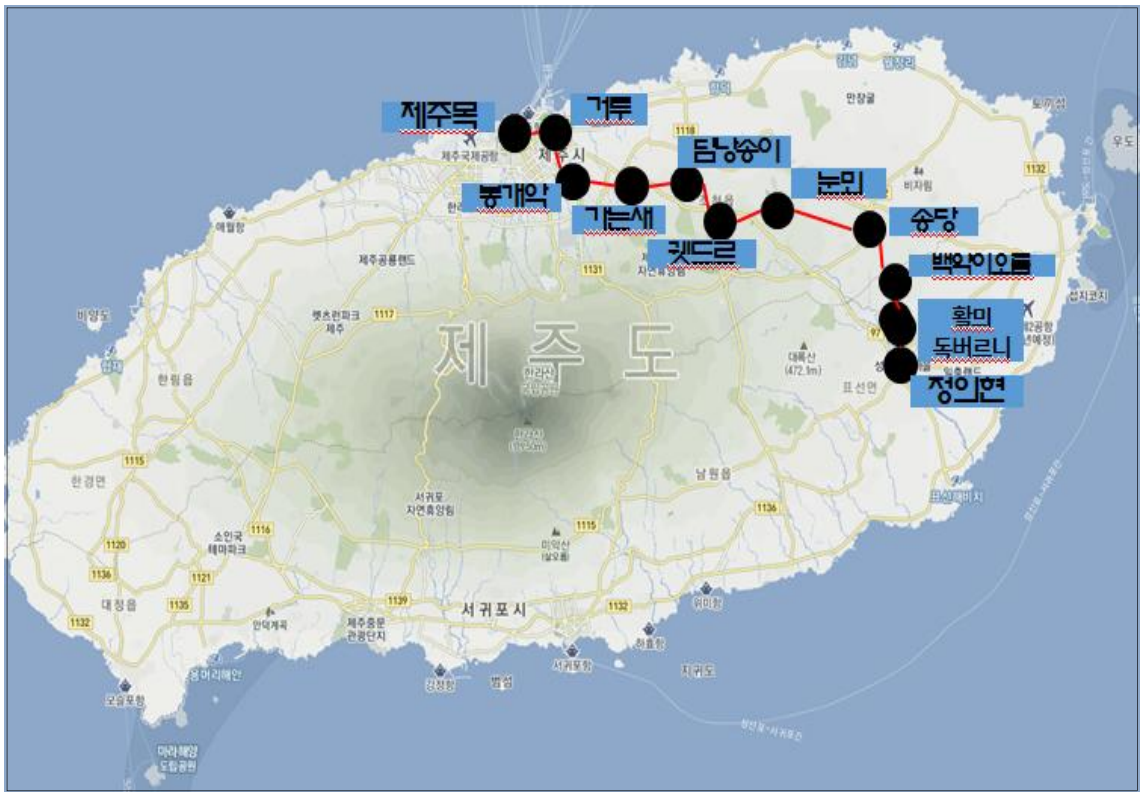
<그림 10> 동회천 표지석



<그림 11> 백약이 오름



<그림 12> 근민헌(2014년 복원)



<그림 13> 조정철의 유배길

이러한 조정철의 이배여정을 살펴보면 제주목 적거지→ 제주성 동문→ 과원현→ 거루→ 봉개악→ 세은쇄→ 당남송이→ 켓드르→ 눈피→ 송당→ 백악이오름→ 활미→ 독버르니→ 정의현에 당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을 다시 지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조정철의 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조정철의 유배길”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 길을 따라 제주도에 정배되었던 유배인과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조정철의 시문 등을 표지판으로 만들어 게시한다면 충분히 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상 이배길이라고 해야 맞지만 이배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용어 일 수 있고, 또 조정철이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유배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유배길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섬 주민들의 생활상을



<그림 15> 추사길 1코스(집념의 길)



<그림16> 추사길 2코스
(인연의 길)



<그림 17> 추사길 3코스(사색의 길)



〈그림 18〉 성안유배길



〈그림 19〉 최익현 유배길

이 길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조정철의 유배길도 홍윤애와의 러브스토리, 유배여정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절 유배문화콘텐츠의 활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철과 홍윤애 관련 유배문화콘텐츠들을 활용하여 조정철도 추사 김정희의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추사관처럼 유배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사관은 서구포시 대정읍 추사로에 위치하며 2007년 제주도지정 기념물이었던 ‘제주추사적거지’가 ‘추사유배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가지정 사적 제487호로 승격됨에 따라 새롭게 건립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추사 유물전시관 사업이 2010년 마무리되었다. 총 사업비 75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1192㎡ 규모로 건립되었다. 전시실에는 추사 관련 유물 60점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품에는 부국문화재단이 2006년 기증한 예신 김정희종가 유물 26점을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예술인과 독지가 등이 기증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⁸⁰⁾ 현재 추사관에는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가 전시되어 있지만 김정희의 유배생활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경남 남해에는 3만 5565㎡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2661㎡로 총사업비 138여억 원을 들여 전시실과 강당, 영상실 등을 비롯한 야외 체험시설, 야외공원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의 남해문학관이 있다. 남해에서는 2017년 서포 김만중의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남해문학관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만중을 학문적으로 더 깊게 연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⁸¹⁾ 제주도에 이미 추사관이 있기는 하지만 김정희와 조정철은 다른 인물이고 제주 유배문화관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조정철의 유배문화관 건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80) 「제주 추사관, 내달 개관 앞두고 막바지 준비 한창 -추사 고택 유물 등 60점 전시, 특별기획전 등 마련-」, 『제주신보』, 201004.18

81) 「국내 최초 남해유배문학관 건립」, 『뉴스』, 2009.05.13.; 「서포문학관의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중도일보』, 2017.02.05.

<표 3> 『정헌영해처감록』 주제별 분류

번호	내용	시수	번호	내용	시수
①	유배인의 심상	170	①7	이웃	6
②	한라산	8	①8	원자탄신	2
③	기후	27	②0	영조	4
④	풍경	23	②1	선비	3
⑤	제주목사와의 관계	13	②2	정루	10
⑥	홍윤애	4	②3	굴림서원	4
⑦	의복	3	②4	부역	3
⑧	목장	3	②5	정루	10
⑨	지리	2	②6	경계의 글	8
⑩	풍속	9	②7	제야(그믐)	9
⑪	풍토	3	②8	기타	17
⑫	굴	15			
⑬	섬주민에 대한 인식	163			
⑭	가족	83			
⑮	유배여정	18			
⑯	보수주인	5		합계	633

위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유배인의 심상 170> 섬주민에 대한 인식 163> 가족 83> 기후 27> 풍경 23> 이배여정 18> 「굴유품제」 15 순으로 조정철의 유배생활과 섬 주민에 관한 인식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절도정배지인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장기간동안 하였기 때문에 역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제주도 산물인 굴에 대한 상세한 정보이다. 굴은 지금도 제주의 중심산업이지만, 『정헌영해처감록』에 기록된 굴유(橘柚)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품종의 경우 유감굴(乳柑橘), 별굴(別橘), 대굴(大橘), 당금굴(唐金橘), 동정굴(洞庭橘), 소굴(小橘), 당유자(唐柚子), 감자(柑子), 금굴(金橘), 유자(柚子), 산굴(山橘), 청굴(靑橘), 지굴(枳橘), 등자굴(橙子橘), 석금굴(石金橘) 등 총 15종이 확인된다. 이는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말한 금굴, 유감굴, 동정굴, 청굴, 산굴, 감자, 유자, 당유자, 왜굴 등 9종에 비하여 훨씬 세분화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정철은 굴유의 품종마다 매우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주목된다.

조정철이 언급한 귤유는 모두 재래종이다. 재래종 귤유는 금귤, 산귤, 청귤, 동정귤, 유자, 당유자, 감자 등 총 22개 품종이 재배되었으나 식용으로는 맛이 없고 품질이 떨어져서 점차 새로운 품종으로 개량되었다. 오늘날 제주도에 재배되고 있는 재래종 귤유는 병귤, 당유자, 유자, 청귤, 지귤 등 몇 종류만 재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래종 감귤은 맛이 떨어져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유자를 비롯하여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바로 먹기보다는 주로 차로 담가 먹는다. 현재 제주도에 재래종 감귤을 보호하기 위해 수명이 오래된 감귤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재래종 감귤을 복원·재배하며 지속적 연구하고 있다. 역대 제주도 관련 문헌에서 언급되었던 제주도 귤유의 품종을 소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제주도 귤유의 품종⁸²⁾

김정 『제주풍토록』 (16c)	이원진 『탐라지』 (17c)	조정철 『정헌영해처 감록』(18c)	김정희 『완당전집』 (19c)
금귤	금귤	금귤	금귤
감자	감자	감자	감자
동정귤	동정귤	동정귤	동정귤
당유자	당유자	당유자	당유자
산귤	산귤	산귤	산귤
유감귤	유감귤	유감	유감
유자	유자	유자	
왜귤	왜귤		
청귤	청귤	청귤	청귤
	등자	등자귤	등자
		대귤	대귤
		당금귤	당금귤
		별귤	별귤
		소귤	소귤
		석금귤	석금귤
		지귤	지각

82) 이 표는 필자가 『정헌영해처감록』과 『귤록』(한언직 저, 2016, 현행복 역, 민속원) 중에서 제주도 귤에 대해 부록으로 정리된 것을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위의 <표 4> 앞서 보듯이 제주도 귤유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문헌에서 확인된 품종이 많이 16세기에 9종 18세기에는 15종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금귤(金橘)에 대해서 김정은 9월에 익어 귤유 중에 가장 빠르게 익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철은 크기 당금귤보다 조금 작고 색은 황색이며 껍질이 얇고 씨는 조금 많다고 한다. 맛은 시지는 않고 수분이 적어 하루 종일 먹어도 싫증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감자(柑子)에 대해서 김정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조정철은 크기는 큰 것은 오리 알만 하고 작은 것은 계란만 하며 색은 짙은 황색이다. 껍질이 얇고 씨가 많으며 맛은 달면서도 시다고 한다. 적당히 맑고 차가우며 상쾌하여 귤유의 참된 맛이라고 한다.

셋째, 동정귤(洞庭橘)에 대해서 김정은 크기는 작으나 맛이 시원하다고 했다. 조정철은 크기 홍시와 같고 색은 담황색인데 약간 푸른빛을 띤다. 껍질이 얇고 씨는 작으며 맛은 단맛보다 신맛이 많이 난다고 한다.

넷째, 당유자(唐柚子)에 대해서 김정은 크기는 모과와 같고 맛은 유자만 못하며 커다란고 누렇게 익은 것이 진기하다고 했다. 조정철은 몸체가 커서 큰 것은 한 되만 하고 색은 짙은 황색이다. 맛은 시면서도 아주 달고 수분이 많아 시원하고 차갑다고 한다.

다섯째, 산귤(山橘)에 대해서 김정은 열매가 작고 씨가 유자와 같아 맛이 달다고 했다. 조정철은 크기는 감자와 같기도 하고 당금귤만하기도 하다. 껍질은 두 겹지도 않고 얇지도 않다. 젓꼭지 같이 생긴 뿔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모양이 일정치 않다. 대체로 뿔이 많은 게 맛이 뛰어나다. 껍질은 진피로 만들며 맛과 수분이 일정하지 않다고 품평했다.

여섯째, 유감(乳柑)에 대해서 김정은 10월 그믐에 익는다고 설명했다. 조정철은 크기는 작으나 영호남 사이에서 나는 조홍감과 같다. 색은 녹색을 띠면서 조화를 이뤄 윤기가 나는데 잘 익으면 곧 낙엽이 져서 붉게 물들며 누런 피질은 지극히 얇다. 씨는 매우 작고 적으며 알맹이가 너댓 개 뿐이다. 물이 많아 맛은 달고 차면서 향기롭다고 했다.

일곱째, 유자(柚子)에 대해서 김정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라고 설명했다. 조정

철은 영호남 사이에서 산출되는 것과 같고 9월에 진공(進貢)한다고 했다.

여덟째, 청귤(靑橘)에 대해서 김정은 가을과 겨울은 매우 시어 먹을 수 없고 2, 3월이 되면 시고 단맛이 알맞아 자신은 이것을 제일로 치겠다라고 설명했다. 조정철은 크기는 산귤과 같고 색은 푸르다. 맛은 완전히 시며 3~4월에 충분히 익어 먹을 수 있다. 껍질은 청피를 만든다고 했다.

다음은 『정헌영해처감록』에 나온 새로운 품종에 대한 설명이다.

등자(橙子)의 크기는 산귤과 같고 색은 푸르며 간혹 붉은 반점이 있는 것도 있다. 맛은 지극히 시콤하며 물이 많고 껍질은 말리면 진피(陳皮)가 된다고 품평하고 있다. 대귤(大橘)의 크기는 유자와 같고 색은 노랗다. 껍질은 두꺼우며 주름 투성이고 아주 맑은 향기가 있어 가히 귤유의 성자(聖者)라 할만하다. 당금귤(唐金橘)의 크기는 유감과 같고 색은 황금빛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별귤(別橘)의 크기는 계란 크기만 하고 색은 담황색으로 윤기가 난다. 병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보여 일명 ‘병귤’이라고도 한다. 소귤(小橘)의 크기는 오리 알과 같고 색은 자금(紫金)빛이나, 겨울이 닳치면 점점 주사와 같이 붉어진다. 석금귤(石金橘)의 큰 것은 금귤 작은 것과 같고 작은 것은 밤과 같으며 색은 황색이다. 지귤(枳橘)의 크기는 당유자에 버금가며, 의사(醫司)에 진공하거나 의원용으로 팔기 때문에 귤유라고 하지 않고 지각(枳殼)이라 이름하며, 귤유라 하는 것은 맛을 아는 사람을 기다려서 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정과 조정철의 귤유 중 공통된 부분을 비교하였다. 김정의 설명과 품평은 조정철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조정철은 모든 품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품평을 하지만 김정은 너무 간결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유배인 조정철 만큼 귤유 품종에 대해 분류하거나 품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과 이원진의 품평이 가장 비슷한데 이는 이원진이 김정의 품평에 의거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배인들은 제주도의 귤유에 대하여 많은 시와 품평을 남겨 오늘날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에 귤을 전시하는 곳은 감귤박물관, 제주농업생태원 감귤전시실, 관덕정 귤림원 등이 있다. 특히 감귤박물관은 서귀포시에 위치하며 감귤에 대한 역사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다. 하지만 재래종 귤유는 고서 속의 품종이라는 이름

으로 8종 소개하고 있을 뿐 고서에 대한 출처가 나와 있지 않다.

최근 곶을 비롯하여 열대과일이 도서·연안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황아래 조선시대 제주도 유배인의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품종과 품미, 그리고 지역성이 반영될 경우 특산물로써의 위상은 물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제5장 결론

이 논문은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유배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철은 참판을 지낸 조영순의 아들로 1751년(영조 27)에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가 숙종대 노론 사대신의 한 사람인 조태채이다. 조정철은 스물다섯 살 때인 1775년(영조 51)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별검이 되었다. 그 후 1777년(정조 1) 8월에 홍인한·홍지해·윤양로 등이 정조 시해를 주도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말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정범인 홍상범의 노비 감정이 조정철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일로 인해 조정철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왜냐하면 정조 시해미수사건을 주도했던 인물 중에 조정철의 장인인 홍지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였으나, 조정철은 제주도로 유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조정철의 증조부가 노론 사대신 중의 한 사람인 조태채였기 때문이다.

조정철의 유배기간은 총 29년으로 1777년(정조 1) 제주목에서 시작하여 1782년(정조 6) 정의현, 추자도 등으로 이배되었다. 이 중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는 모두 13년이었다. 조정철은 해배된 후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811년(순조 11)에 통훈대부 제주목사 겸 전라도방어사로 임명되어 과거 자신이 유배생활을 경험하였던 제주도로 부임한 것이다. 조정철은 제주도 유배기간 동안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이 시문이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되어 있다. 조정철은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년, 총 13년간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였고, 이때 작성한 시문집이 총 4권이다. 『정헌영해처감록』은 유배인의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한을 읊은 시문집이다. 이외에도 「탐라잡영」과 「귤유품제」 등 제주도의 자연과 생활상, 그리고 귤유(橘柚)의 종류 등을 전달해 주고 있어 흥미롭다.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은 제주목사 김영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매우 엄격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황이 『정헌영해처감록』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면 제주목사 김영수는 부임하자마자 조정철을 비롯하여 제주도 유배인들에게 책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지역민과의 왕래, 소소한 식사 등 조정철의

유배생활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제주목사 김영수의 괴롭힘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조정철의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1781년 김영수의 후임으로 김시구가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김시구는 소론으로, 벽파인 조정철을 제거하고자 했다. 그래서 김시구는 부임하자마자 면포 50필을 현상금으로 걸고 조정철에 대해서 밀고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밀고하는 자가 없자 자신이 직접 조정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조정철의 죄목이 드러나지 않자, 판관 황인채와 공모하여 어린 기녀를 조정철의 적거지에 드나들도록 꾸며 장살하였다. 그러던 중 제주목사 김시구는 조정철과 홍윤애의 관계를 알고, 제주 여인 홍윤애를 포박하여 조정철이 비리를 거짓으로 자백할 것을 강요했다. 그렇지만 홍윤애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김시구는 죄 없는 여인을 살해한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제주도 유배인들이 역당모의를 한다며 조정에 거짓 밀계를 올렸다.

1781년 7월 12일 조정에서는 제주도 삼읍(三邑)의 4장리(長吏)를 바꾸고, 안핵어사를 임명하여 보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781년(정조 5) 8월 12일 안핵어사 박천형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도로 입도하였다. 어사 박천형은 조정철의 죄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하였다. 진상조사는 동년 8월에 시작하여 10월에 끝이 났다. 조정철의 역모혐의는 무혐의로 판결되었으나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되는 수모를 겪었다.

조정철이 정의현으로 이배되었을 당시 정의현감은 이우진이었다. 이우진은 앞서 언급한 김시구의 일로 부임한 사람이었다. 조정철은 이우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우진은 관아에 도착한 이후 여러 가지로 죄인을 지키는 신법(新法)을 만들고 백성이 병들고 괴로워해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상관을 염두에 두어 죄인 지키기를 최상의 실적으로 삼았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까닭에 정의현감 이우진 역시 조정철에게 있어서 좋은 관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철은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도 고달팠지만, 섬주민과 교류하면서 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철이 정의현에서의 유배생활 중 제주선비 김성린에게 가장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철은 김성린과의 만남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친 골육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였다. 『정현영해처감록』에 제주도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시문이 있다. 예컨대 제주도의 지리, 산물, 풍속, 풍

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풍속이나 풍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다. 그 이유는 조정철이 제주목사들과의 갈등이 깊었던 만큼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정철의 시각이 서서히 바뀌어 갔던 것이다.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의 이배여정이 『정헌영해처감록』에서 확인된다. 총 1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제주도에서 성읍으로 가는 노정이 확인되고 있어 흥미롭다. 첫째, 조정철의 유배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다. 이를하여 “조정철의 유배길”라 명명하였다. 그 길을 따라 제주도에 정배되었던 유배인들과 조정철의 시,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상이 중도에 표지판으로 만들어 게시된다면 충분히 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에서의 유배생활과 섬 주민들의 생활상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홍윤애에 관한 내용이다. 홍윤애는 조정철이 제주도에 유배된 지 3년이 지나갈 무렵인 1779년(정조 3년) 겨울에 인연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781년(정조 5년) 2월 30일에 홍윤애는 딸을 분만하였다. 이때 제주목사 김시구가 조정철을 제거할 목적으로 홍윤애를 잡아들인다. 결국 홍윤애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후 1805년에 조정철이 해배되어 다시 관직에 진출하였고 1811년(순조 11)에 조정철은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다. 조정철은 제주목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홍윤애와 딸의 신원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일례로 홍윤애의 무덤을 새로이 단장하고, 딸과 사위를 자신의 호적에 이름을 올려 주었다. 그 결과 20세기 제주도에서는 홍랑을 추모하기 위해 바로 홍랑길을 조성하고 홍윤애 관련 문화자원으로 홍윤애의 무덤 터, 조정철이 건립한 묘비명이 있다. 이러한 유배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관광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헌영해처감록』에 기록된 귤유(橘柚)에 관한 내용은 지역 특산물에 얽힌 스토리텔링 요건을 갖추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즉 「귤유품제」에는 조정철이 귤과 유자를 품평한 시문 총 15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에 따르면 18세기 제주도의 귤유는 유감귤, 별귤, 대귤, 당금귤, 동정귤, 소귤, 당유자, 감자, 금귤, 유자, 산귤, 청귤, 지귤, 등자귤, 석금귤 등 총 15종이 확인된다. 이는 김정희의 『제주풍토록』에서 말한 금귤·유감귤·동정귤·청귤·산귤·감자·유자·당유자·왜귤 등 9종에 비해 훨씬 세분화된 것이다. 조정철은 각 품종마다 매우 자세한 설명을 『정헌영해처감록』에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도 귤유의 재래종과

감귤의 상품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연구사적 의의는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유배인의 시각으로 본 제주도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 특히 조정철과 홍윤애 관련 유배문화자원은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大明律直解』, 『大東地志』,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燕山君日記』, 『景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靜軒瀛海處坎錄』, 『楊州趙氏族譜』 上, 中, 下

국립중앙박물관, 2006, 『대동』,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6, 『대동』해설편, 국립중앙박물관

김만선, 2008, 『유배』, 갈리온

김봉현, 홍성목 역, 2005, 『제주도유인전』, 제주도우당도서관

김순이 외, 2009, 『제주 여성 문화유적 1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김순이·표성준, 2012,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여름언덕

박광용, 1998,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신규수, 2000, 『유배, 유배지, 엮힌바람』 □ 이유

신정일, 2012, 『새로 쓰는 택리지』, 다음생각

안대회·이종묵, 2011, 『절해고도에 위리안치 하라』, 북스코프

이형상 저, 이상규·오창명 역, 2010, 『남환박물』, 푸른역사

전경수 외, 2013,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2008, 『제주특별자치도』 112,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지』 2, 제주도, 200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6, 『추자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조원환 편, 1994, 『양주조씨사료선집』, 보경문화사

조정철 저, 김익수역, 2006, 『정현영해처감록』, 제주문화원

한언직 저, 현행복 역, 2016, 『굴록』, 민속원

홍순만, 1998,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강재언, 1988, 「제주도 유배기의 김윤식」, 『탐라문화』 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강주진, 1987, 「벽파가문 출생의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동기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고정우, 1989,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탐라문화』 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김경숙, 1998, 「조선시대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사학연구』 55·56, 한국사학회
- _____, 2006, 「17세기 후반 유생 이필익의 유배생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_____, 2007, 「17세기 후반 한 유생의 유배살이」, 『선비문화』 12, 남명학연구원
- 김경옥, 2010, 「조선시대 유배인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활용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0, 호남사학회
- 김상태, 1999, 「추사 김정희와 낙산거인·석당인과의 관계연구」, 『서지학연구』 18, 서지학회
- 김새미오, 2017, 「제주유배문학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試論) -김진귀, 김춘택, 임징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0, 영주어문학회
- 김성태·양진건, 2014, 「우암 송시열의 유배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석당논총』 59, 동아대부설 석당전통문화연구원
- _____, 2015, 「송시열의 제주유배 한시의 교육적 의미」, 『제주도연구』 44, 제주학회
- 김엘리, 2016, 『19세기 초 효전 심노송의 유배생활 연구 -『남천일록』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유리, 2012, 「충암 김정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4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12, 「규창 이건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20, 한국국학진흥원
- 김윤규, 2012, 「고전문화 콘텐츠 -다산(茶山) 장기(長鬢) 유배 문학-」, 『문학과 언어』 34, 한국문화융합학회
- 김윤조, 2006, 「추사 김정희 산문 연구」, 『대동한문학』 25, 대동한문학회
- 김의환, 2011, 「조선 중기의 유배형과 유배 생활 -16세기 괴산과 성주의 이문건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44, 역사실학회

- 김재형, 2011,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철, 2011, 「제주도 대정성지 공간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_____. 양진건, 2015,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인문콘텐츠』 36, 인문콘텐츠학회
- 김태수, 1992, 「추사의 유배시 연구」, 『한문학논집』 10, 근역한문학회
- 김홍철, 2011, 「김충암의 유배시 연구」, 『청대학술논집』 17, 청주대 학술연구소
- 박동욱, 2011, 「조정철의 「탐라잡영」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2, 동양한문학회
- _____, 2010, 「두 사람의 유배인과 한 명의 제주 목사」, 『문헌과 해석』 50, 문헌과 해석사
- _____, 2010,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 -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_____, 2007, 「정헌 조정철의 유배 한시 연구 -홍량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 부영근, 2006,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 고찰」, 『영주어문』 11, 영주어문학회
- _____, 2006,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시 고찰」, 『동아인문학』 10, 동아인문학회
- 송인영, 2016, 「『靜軒瀛海處坎錄』정헌영해처감록에 나타난 趙貞喆의 意識研究」,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신규수, 2012, 「조선시대 유배형벌의 성격」,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 심재우, 2000,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2001, 「조선후기 단성 지역 정배인의 존재 양태」, 『한국학보』 27-1, 일지사
- _____, 2012, 「19세기 전반 평안도 지역 유배인의 성격과 유배행정 -『평안감영계록』순조대 기사분석-」, 『한국문화』 5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양순필, 1979, 「추사의 제주 유배서한 고」, 『아카데미논총』 7, 세계평화교수협회의
- _____, 「추사의 제주유배한시」, 『논문집』 14, 제주대, 1982
- _____, 「충암의 유배한시 고」, 『어문논집』 23, 안암어문학회, 1982
- _____, 1985, 「충암의 제주 유배한시 고 -『해도록』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 9·10, 겨레어문학회
- _____. 양진건, 1987,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89, 「추사 김정희의 한문서한 고」, 『탐라문화』 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89, 「북헌 김춘택의 제주 유배한시 고」, 『백록어문』 6,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 _____. 김봉옥, 1991,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문학 연구」, 『논문집』 32, 제주대
- _____. 1992, 「우암 송시열의 제주 유배시 소고」, 『백록어문』 9,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 양진건, 1992,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교학사상 연구」, 『제주도연구』 9, 제주도연구회
- _____. 2002, 「면암 최익현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한국교육사학』 24, 한국교육사학회
- _____. 강동호, 「면암 최익현 제주 유배한시에 나타난 교육적 태도와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 『인문학논총』 35,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윤치부, 2001, 「추사의 제주 유배시 한글편지 쓰기와 읽기」, 『논문집』 30, 제주교육대
- 이민홍, 2001, 「우암의 장기 유배생활 실상과 저작활동」,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 이종범, 2011, 「15세기 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 『역사학연구』 41, 호남사학회
- 임춘택, 2015, 「제주 유배시기 추사 김정희의 ‘치유적 글쓰기’와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 방안」, 『인문연구』 75,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장공남, 2012, 「제주유배문화 역사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활용방안」,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장선영, 2000, 「조선시기 유배와 절도정배의 추이」,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1, 「조선시기 유형과 절도정배의 추이」, 『지방사와지방문화』 4, 역사

문화학회

- 장혜련, 2006, 「조선 중기 제주 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정시열, 2008, 「동계 정운의 시에 나타난 선비정신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41, 한국사상문화학회
- 정연식, 2002, 「조선시대의 유배생활 -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9,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
- 정진영, 2013, 「섬, 풍요의 공간 -19세기 중반 한 유배객의 임자도 생활-」,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 _____, 2013, 「섬, 소통의 공간 -금령의 『간정일록』(1862~3)을 통해 본 19세기 섬의 형상-」, 『역사와 경계』 88, 부산경남사학회
- 정후수, 1996,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 『한성어문학』 15,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 조규백, 2003,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 한시문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 -중국 문인 소동파와 관련하여-」, 『중국연구』 32, 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 조서현, 2011, 「제주 유배인 추사 김정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방안」,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 조평환, 2007,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에 나타난 제주의 생활정서」, 『동방학』 13,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 지철호, 1985, 「조선 전기의 유형」, 『법사학연구』 8, 한국법사학회
- 최성환, 2011, 「조선 후기 추자도 유배인의 추이와 생활양상」, 『도서문화』 3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_____, 2014, 「『두류단』을 통해 본 김평묵의 지도 유배생활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7,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지방사와지방문화』 20, 역사문화학회
- _____, 2014, 「『續陰晴史』를 통해 본 20세기 초 김윤식의 智島 유배생활과 島嶼地域 사회상 변화」, 『인문논총』 34,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5,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 역사』 36, 부경

역사연구소

- _____, 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
국민족문화』 3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6,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유배인의 소통」, 『다산과현대』 9, 연세대 강
진다산실학연구원
- 한창훈, 1990, 「면암 유배한시 연구」, 『백록어문』 7, 제주대 국어교육연구회
- _____, 2000,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기 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
구』 18, 제주도연구회
- _____, 2007, 「최익현의 제주 유배 한시 고찰」,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
회
- 홍순만, 1986, 「조선 말기 제주도의 유배인과 형사제도」, 『제주도연구』 3, 제주도
연구회
- _____, 1996, 「제주유배를 통해 본 추사문화」, 『제주도사연구』 5, 제주도사연구
회
- 현병관·장애란, 2012,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7, 한국디자인트렌
드학회

「제주시, 홍랑길 생활문화콘서트에 초대」, 『뉴시스』, 2016. 07. 21

「제주시 도로·광장·공원 237곳에 특성 살린 명·별칭 부여」, 『뉴시스』, 2011. 08.
05

「국내 최초 남해유배문학관 건립」, 『뉴시스』, 2009. 05. 13

「‘제주 의녀 홍윤애문화제’ 사비 들여 잇는다. -홍윤애를 사모하는 모임, 8일
유수암 홍윤애 묘역-」, 『한라일보』, 2017. 07. 04,

「제주 추사관, 내달 개관 앞두고 막바지 준비 한창 -추사 고택 유물 등 60점 전
시, 특별기획전 등 마련-」, 『제주신보』, 2010. 04. 18,

「서포문학관의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중도일보』, 2017. 02. 05

제주시향토문화전자대전(jeju.grandculture.net)

18세기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박 지 연

목포대학교 대학원 도서해양문화학협동과정
(지도교수 강 봉 룡)

<국문초록>

이 연구는 18세기 제주도에 유배된 조정철(1751~1831)의 시문집인 『정헌영해처감록(貞軒瀛海處坎錄)』을 분석하여 유배생활과 제주도 사람들의 실태, 그리고 현전하고 있는 유배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철의 생애와 『정헌영해처감록』의 체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정철은 숙종 때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인 충익공 조태채(1680~1722)의 증손자이자, 노론 벽파의 수장인 홍지해(1720~1777)의 사위이다. 1777년에 조정철은 홍지해 등 노론 벽파세력에 의해 시도되었던 정조(正祖) 시해(弑害) 미수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분석자료인 『정헌영해처감록』은 조정철이 13년 동안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작성한 시문집이다. 이 문집에는 총 630여 수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분석하여 유배인과 섬주민들의 생활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헌영해처감록』에 수록된 시문을 분석하여 18세기 제주도에 정배되었

던 조정철이 어떻게 유배생활하였는가를 검출하였다. 조정철의 제주도 유배생활은 제주목 유배기(1777~1781)와 정의현 유배기(1782~1790)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조정철은 제주 유배생활 가운데 2회에 걸쳐 배소(配所)를 교체하였는데, 공간적으로 제주목에서 5년, 정의현에서 8년, 총 13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정철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정철 관련 유배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홍랑길, 조정철의 유배길, 그리고 유배기념관 건립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홍랑길은 조정철과 제주여인 홍윤애와의 만남을 통해 조성된 문화콘텐츠를 파악하였다. 다음 조정철의 유배길은 그가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이배되는 노정을 복원한 것이다. 끝으로 제주도의 특산품인 굴에 관한 고기록(古記錄)의 확인이다. 즉 조정철의 시문집에 수록된 「탐라잡영」과 「굴유품제」에서 18세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섬주민들의 생활상, 그리고 당시 제주에서 재배되었던 감굴의 품종에 대한 상세정보를 검출하였다. 이러한 조정철 관련 유배문화콘텐츠는 21세기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